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의 分析을 통해 본 初雕 및 再雕大藏經의 變容에 관한 研究

姜 順 愛*

目 次

- I. 序論
 -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 2. 研究範圍 및 方法
- II.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 1. 校正別錄의 低本
 - 2. 校正別錄의 校勘內容
- III. 初雕·再雕大藏經의 變容
 - 1. 初雕本の 僞本을 再雕時 代替한 것
 - 2. 初雕本の 無·失로 再雕時 編入한 것
 - 3. 初雕本の 重出로 再雕時 削除 또는 代替한 것
 - 4. 初雕本の 不必要로 再雕時 代替한 것
 - 5. 初雕本の 重寫와 錯重寫로 再雕時 代替한 것
 - 6. 初雕本の 內容錯誤로 再雕時 代替한 것
 - 7. 初雕本の 卷數差異로 再雕時 代替한 것
- IV. 結論

I. 序論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은 우리 나라 佛敎經典校勘學史上 신기원을 이루는 중요한 서목이다. 이서목은 30卷으로 이루어졌으며, 國本인 初雕本과 宋本, 契丹本을 對校하여 송本の 誤脫, 錯寫, 異譯등의 논점은 물론 經名, 譯者名, 卷數, 函次등의 이동까지 밝히고 정문을 보족

* 漢城大學校 文獻情報學科 專任講師

2 한국비블리아 제 7 집

하여 총 70函 66經 79件을 校勘한 기록이다. 校勘對象은 天函부터 英函까지 開元釋教錄所收의 480帙과 策函부터 密函까지 貞元入藏經 所收의 43帙 뿐이다. 宋新譯經과 宋太宗의 御製는 제외되었다. 이들 經典은 高麗에서는 송으로 부터 傳入된 상태였으나 宋에서는 新譯 또는 著撰한 것이 바로 수입된 것이기 때문에 校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新集藏經音義隨函錄은 교감할 송·고려본이 없었을 것이다.¹⁾

일찍이 小野玄妙교수는 初雕大藏經目錄을 복원하는 방법은 校正別錄에 기술된 몇가지 사례를 들고 이 사례를 정정하면 원 目錄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²⁾ 이러한 시사는 校正別錄이 舊大藏目錄³⁾에 실린 경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初雕 및 再雕大藏經 變容에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본 研究가 목적하는 것은 이러한 단서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현재 완전히 파악되지 않는 初雕大藏經目錄의 원형 설계에 하나의 밑돌로 쓰고자 하는 데에 있다. 初雕大藏經 목록의 복원에 관한 연구는 선행연구가 이루어 졌는 데,⁴⁾ 이 연구는 舊大藏目錄의 低本目錄을 중심으로 분석한 선구적 업적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은 이와 좀더 다른 視角에서 출발하여 舊大藏目錄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문헌적 근거는 守其法師의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30권인 점에 착안하였다. 이 교감기록이 大藏目錄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데는 일부의 단편적 기록에 불과 하지만, 初雕 및 再雕大藏經 變容의 근거를 찾는 데는 가장 합당한 목록이라는 점이다. 이들 변용의 근거들을 찾아서 初雕大藏經目錄의 기초로 쓰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초점이다. 이와 같은 視角으로 시도된 연구는 없는 듯 하다. 따라서 몇가지로 시도하는 연구의 편린들이 모여서 하나의 작은 집을 지었으면 하고 후일을 기약한다.

2. 研究範圍 및 方法

본 研究의 範圍는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에 실린 藏經의 校勘內容에 근거하여 初雕 및 再雕大藏經의 變容을 考究하기 위해,

1.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의 校勘 低本과 校勘內容을 밝혀 여러 측면에서 活用할 수 있는 文獻的 分析에 치중하며,
2. 初雕 및 再雕大藏經의 函次變容의 세부적 要因인 代替, 刪去,

變動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동기와 과정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둔다.

이 研究는 본인이 새롭게 시도하는 初雕大藏經 目錄의 원형을 찾아가기 위한 일련의 시도중의 하나이므로 연구의 범위가 축소되어 있는 것이 두드러지는 제약점의 하나라 하겠다.

이는 후일의 여러 연구와 연관되면서 그 중형의 폭을 넓힐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II.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校正別錄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守其法師에 의해 校勘學 차원에서 이루어진 주요한 서목이다. 이 서목에 대한 연구는 吳龍燮님에 의해 시도된 바 있는데,⁹⁾ 이는 書目의 編撰者인 守其法師의 考察에 이어 校正別錄의 校勘本別에 의한 內容分析, 意義를 중심으로 다루어서 목록 자체의 평가에 주력하였다.

校正別錄은 再雕大藏經 본문의 정확성을 위해 간행이전에 시도된 校勘目錄으로 체계나 형식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질 것은 별로 없다. 다만, 校勘의 低本과 內容은 初雕本의 原形과 再雕本의 修訂 여부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도구로서 그 가치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校勘의 低本과 校勘內容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1. 校正別錄의 低本

校正別錄의 저본이라 함은 對校本의 밑본으로 사용된 國別 大藏經에 해당한다. 校正別錄에 나타나는 低本으로는 國本, 宋本, 契丹本이다. 이들 低本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校正別錄의 내용에 대한 것도 구체적이면서도 정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각 低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國本大藏經

校正別錄에서 언급하는 國本大藏經은 초조대장경을 일컫는다. 初雕大藏經은 顯宗2년(1011) 契丹의 來侵을 계기로 그 무렵부터 시작되어 제1단계는 舊宋本, 2단계는 契丹本, 3단계는 宋朝大藏經을 低本으로

4 한국비블리아 제 7 집

하고 그 외에 國內傳本을 포함하여 宣宗4년(1087)까지 76년을 걸쳐 일단락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⁶⁾ 이처럼 76년간을 걸쳐 일단락된 初雕大藏經의 雕造는 義天이 쓴 寄日本國諸法師求集教藏疏에서 開元釋教錄, 貞元續開元釋教錄을 비롯한 宋新譯經論을 합쳐 六千來卷이라 하였다.⁷⁾ 開元釋教錄에 수록된 경론은 宋新譯經의 일부를 비롯한 續開元釋教錄과 그 이후에 入藏된 諸目錄 그리고 契丹大藏經, 國內傳本중에서 취한 것에 해당된다.

이와같이 初雕大藏經은 北宋開寶勅板을 근간으로 하고 契丹板은 譯文의 차이가 있을 때 삼입 대체하였으며, 宋朝大藏經은 여러 목록에 수록된 경전을 수입하는 대로 간행하여 累加 編入시켰다. 또 전체 藏經의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國內傳本도 또한 低本으로 삼아 편입시켰다.

이들 初雕大藏經의 일부만이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校正別錄의 교감 대상이 되었는데, 服函, 決定毗尼經부터 旣函, 辨正論까지는 開元釋教錄 所收分을 대상으로 國本, 宋本, 契丹本の 삼국본에 의해 이루어 졌다. 佐函, 一字頂輪王經과 孰函, 佛說木槵經은 貞元續開元釋教錄의 수록분이고, 傾函,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破僧事권13과 廻漢函의 佛名經18본은 續貞元釋教錄의 수록분인 데, 그 중의 전자는 貞元新定釋教目錄에도 또한 실려 있다. 이들 경전 역시 삼국본을 대상으로 교감을 하였다. 俊父密函의 一切經源品次錄30권본과 寧晉楚函의 佛名經30권본은 국내전본 경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교감본이 없었다. 이 중 宋本과 契丹本에 대해서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2 宋本大藏經

宋本大藏經은 크게 두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北宋 開寶勅板이 수입되어 간행된 藏經이고 다른 하나는 宋朝大藏經이 수입되어 간행된 藏經이다.

北宋의 開寶勅板은 宋 太祖가 開寶4년(971)에 高品 張從臣을 蜀의 益州(成都)에 보내어 간행하게 하여 12년 후인 太平興國8년(983)에 완성하게 하였다.⁸⁾ 이 藏經은 刻成된 이후에 인근 여러나라에 賜與되었는데, 고려에의 수입은 成·顯 兩朝에 들어 왔다. 宋史와 文獻通考

의 기록에 의하면, 成宗8年(989)에 大藏經이 수입되는데,⁹⁾ 이의 기록으로는 印本인지 寫本인지 확실하지 않고 우리측 사료에는 그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기록은 韓中の 史料에 다같이 명시된 成宗10年(991)의 印成大藏經의 수입이 될 것이다. 宋史 高麗傳과 高麗史 韓彥恭條를 보면, 淳化2年(成宗10, 991)에 印成大藏經 481函 2,500卷과 御製祕藏詮, 逍遙詠, 蓮華心輪 등을 함께 보내는 기록이 있다.¹⁰⁾ 이번의 輸入大藏經은 종래와는 달리 印成大藏經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때 받아들인 印成佛經은 481函 2,500권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高麗史 世家 10年 4월條에는 왕은 韓彥恭이 청구해 온 대장경을 內殿으로 받아 들이고 讀經을 하였다는 것이다.¹¹⁾ 이들 세 기록은 우선 연대가 일치하고 있으며, 경권의 函數는 開元釋教錄 480秩과 대략 같고 권수는 2,448권의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각각 주장이 다르긴 하지만¹²⁾ 어떻게 송에서 開寶勅板을 찍고 난 후 8년만에 印成佛經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후 藏經의 將來記錄은 續資治通鑑長篇에 보면, 顯宗10年(1019) 11월에 崔元信이 중국에서 中布 2千을 주고 佛經一藏을 받아들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¹³⁾ 이에 대한 기록은 蔡忠順이 撰한 玄化寺碑陰記에 좀더 자세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顯宗11年(1020)에 差使가 중국에서 金文一藏을 구해 왔는데,¹⁴⁾ 이때 장래된 경전은 印成佛經이 아닌 金文藏經 즉 金字寫成의 장경을 뜻함을 알 수 있다. 또 顯宗13年(1022) 5월에 韓祖가 송으로 부터 돌아올 때 宋帝가 聖惠方, 陰陽二宅書, 乾興曆, 釋典一藏을 주어 받아들인 기록이 있는데,¹⁵⁾ 이에 관한 기사는 周佇가 편찬한 玄化寺碑銘에도 전해지고 있다.¹⁶⁾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 釋典一藏도 印本인지 寫經인지 확실하지 않아 印成藏經의 여부를 가름할 수 없다. 다만 그것이 印成藏經이라면 위에서 인용한 2,500권 이외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청래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수입된 開寶勅板은 顯宗2年(1011)傾부터 간행되기 시작하여 그 이후 계속되었으며 이를 축하하는 藏經道場이 顯宗20年(1029)에 대대적으로 베풀어 졌다.¹⁷⁾ 이때 이루어진 양에 대해서는 義天 撰의 代宣王諸宗教藏雕印疏를 보면, 顯祖는 五千軸의 祕藏을 새기고 文宗

은 千萬頌의 契經을 새겼다¹⁸⁾ 라고 하였으니, 약 오천축의 藏經이 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一藏이 다 갖추어 진 것은 아니다. 顯宗 다음에 德宗이 4년, 靖宗이 12년간 재위에 있었으나 藏經 雕造에 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다. 大藏經 雕造사업은 文宗朝에 재개되었다. 그것은 위에서 든 代宣王諸宗教藏雕印疏에 文考는 千萬頌의 契經을 鑄刻하였다는 기록과 海印寺事蹟碑에도 文宗때 大藏經板을 소장했다¹⁹⁾ 라고 하는 文證에 의해 그 간행의 재개 활동은 비교적 재위 초년경 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²⁰⁾ 또 榮州 浮石寺 圓融國師碑銘을 볼 때 文宗7년(1053)에 國師가 大藏經 一部를 마련하여 安國寺에 奉藏하게 하였는데 그것이 印本과 寫本으로 채워진 점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²¹⁾ 이것이 바로 顯宗朝에 대장경이 完刻되지 못하고 文宗7년에 일부의 完帙을 마련할 때 未刻分을 書寫 보충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하나의 흐름인 宋朝大藏經은 開寶勅板 이후 중국에서 새로 간행되어 수입된 藏經을 일컫는다. 開寶勅板이 成都(益州)에서 太平興國8년(983)에 완성되었는데, 그 무렵 天息災와 施護僧의 入宋을 계기로 太平興國寺 서쪽에 譯經院을 세워 각 경전을 新譯하게 하였다. 그 해 7월에 처음으로 번역된 것이 天息災의 聖佛母般若經을 비롯하여 法天의 大乘吉祥陀羅尼經, 施護의 如來莊嚴經이다. 이 때부터 번역된 宋新譯經을 수록한 목록이 편찬되었다. 眞宗 大中祥符6年(1013) 8월에 趙安仁등이 詔勅을 받아 太平興國이래 30년간 신역된 經律論413권을 入藏하여 大中祥符法寶錄 21권을 편수하였는데 이것은 入藏된 뒤에 간행된 것이 아니라 번역과 간행이 병행된 것들이다. 그러나 이것이 1013년 현재 모두 간행된 것은 아니다. 景祐3年(1036) 宋綬는 景祐新修法寶錄을 속수하였다. 이 목록에는 大中祥符4年(1011)부터 26년간의 宋新譯經論 161권이 수록되었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宋新譯經論은 574권이다.²²⁾ 그런데 宋新譯經論의 번역은 嘉祐3年(1058) 三藏 法護가 入寂함에 따라 중지부를 찍었다. 譯經院과는 별도로 印經院을 세워 開寶板의 經板管理와 流布에 힘썼다. 이곳에서는 太平興國9年(984)부터 인출도 했는데 이때부터 宋新譯經論은 물론 貞元 입장의 불전까지 雕印해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것이 神宗 熙寧4年(1071) 3월에 詔令으로 印經院을 폐지하였으며 그해 8월 10일에는 開封府下の

顯聖寺 聖壽禪院으로 이관하였는데 여기서는 既刻의 刻板에서의 인쇄 뿐만 아니라 新譯經典의 板刻도 계속되었다.²³⁾ 그 예로서 紹聖2年(1095)정월 顯聖寺의 印經院에서 철종의 명을 받들어 大乘智印經등 10부의 新經典을 奉勅雕造하였다. 이들 刻板에서 찍어낸 印記는 11세기까지 드물게는 12세기 초기의 것까지 있다.²⁴⁾

그간 간행된 宋朝大藏經이 고려 문종37년(1083)3월부터 수입되었다. 高麗史 문종37년 3월조를 보면, 太子(順宗)에게 명하여 宋朝大藏經을 맞이하여 開國寺에 安置하게 하였으며²⁵⁾ 義天 撰의 寄日本國諸法師求集教藏疏를 참조하면, 初雕에는 智昇이 撰한 開元釋教錄의 경전에 이어 圓照가 편찬한 貞元續開元釋教錄에 수록된 經律論 등과 大宋新翻經 등이 추가되었음이²⁴⁾ 밝혀지고 있다. 初雕目錄으로 알려지고 있는 舊大藏目錄을 조사하여 보면 宋新譯經論에 이어 貞元續開元釋教錄, 貞元新定釋教目錄, 續貞元釋教錄에 수록된 경전이 累加式으로 수록되고 있다. 文宗37년(1083)에 고려로 전래된 宋朝大藏經에는 新譯經論외에 貞元入藏의 불전도 들어 왔다. 그것은 위에서 든 義天의 寄日本國諸法師求集教藏疏의 내용에서도 뚜렷이 입증된다 하겠다.

이들 宋朝大藏經의 간행은 文宗이 그해 7월에 昇遐하였으므로 그 사이에 雕造되지는 못하였다. 文宗의 뒤를 이어 順宗은 卽位한 후 3개월 후에 승하하고 그 뒤를 이어 宣宗이 卽位하였다. 高麗史 宣宗 4년條를 보면, 2월 甲午에 開國寺에 거행하여 大藏經의 완성을 慶祝하였고,²⁷⁾ 3월 己未에는 왕이 興王寺에 가서 大藏殿의 낙성을 축하하였으며,²⁸⁾ 4월 庚子에는 歸法寺에 거동하여 大藏經의 완성을 경축하였다.²⁹⁾ 이와같이 이해 2월과 4월까지 開國寺와 歸法寺에서 大藏經 완성의 경축 행사가 있었고 3월 興王寺에서는 大藏殿 낙성의 경축행사까지 있었으니 이를 宋朝大藏經의 累加入藏이자 初雕大藏經의 마무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文宗37년부터 宣宗4년4월까지 사이에 간행된 것은 杜函부터 穀函까지의 宋新譯經과 그 이하에 이따른 貞元入藏經과 기타의 경전에 해당 될 것으로 여겨진다.

1.3 契丹大藏經

契丹은 聖宗원년(1021)에 송으로부터 北宋大藏經을 下賜 받고 重熙초년(1032)에 간행을 시작하여 咸雍연간(1055-1074)에 이르러 579질을

완성하였다.³⁰⁾ 이 사업은 契丹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漢人僧 覺宛, 非濁, 法均 등으로 하여금 宋版과 같이 漢字로서 雕印하였다. 開元釋教錄 5,048권 보다 많은 遼僧의 저서를 첨부하여 권수가 증가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다.³¹⁾ 고려 初雕大藏經보다 20년 앞서 완성된 契丹大藏經은 고려 문종17년(1063)에 장래되었다. 이에 관하여 遼史 高麗傳에는 淸寧8년(1062)에 와서 조공을 하니 12월에 佛經一藏을 徽(고려문종의 휘)에게 내려 주었고,³²⁾ 高麗史 문종17년(1063) 3월條에는 契丹이 大藏經을 보내니 왕이 法駕를 갖추고 西郊에서 맞이하였다.³³⁾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두 기록을 통해서 보면 文宗16년(1062)末에 契丹에서 賜給한 藏經은 이듬해인 17년(1063) 3월에 고려에 수입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9년 후인 咸雍8년(1062) 12월條에 高麗에 佛經一藏을 사급한 기록이 있다.³⁴⁾ 그러나 이는 본서의 高麗傳과 文宗世家에도 그 기록이 다같이 未傳되고 있다.³⁵⁾ 이 때의 기록은 확실한 신빙성이 없으므로 契丹藏經의 전래는 문종17년으로 볼 수 있다. 契丹藏經은 그 뒤 肅宗4년(1099)³⁶⁾과 예종2년(1107)³⁷⁾에도 들어온 기록이 있다.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권 27 觀函 菩薩本緣經 卷上의 校勘記에는 國宋本에 없는 것이 契丹本에는 26행 442자가 있다고 하였으니³⁸⁾ 초기에 수입된 契丹大藏經의 행자수는 17字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元宗·忠烈王때의 고승인 宓庵이 쓴 契丹大藏慶讚疏에 의하면, 部帙이 簡經하여 200函이 되지 못하고 또 종이는 얇고 글자가 뾰뾰하여 천권이 되지 못하지만 그 정교도는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신의 숨씨를 빌려 이루어진 것 같다 하였다.³⁹⁾ 이 때 宓庵이 본 契丹本은 위에서 말한 17자본보다도 더 작은 글씨로 쓴 '紙薄字密'의 細字 小形本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14字의 北宋 開寶勅板과는 형태가 다른 契丹本의 板刻規模는 자세히 알 수 없는데 이를 교정별록에서 나타나는 기록과 실물을 분석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守其 校正別錄 권30 傾函의 根本一切有部毗奈耶破僧事 권20의 校勘記를 보면, 이 경전은 송본을 바탕으로 새긴 國前本이 있고 契丹本을 바탕으로 새긴 國後本이 있는데 두 문장을 조사해 보니 國前本에는 탈문이 있어 國後本으로 보충했으니 이 國前本이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國前本은 開寶勅板을 低經으로 顯宗

朝와 契丹本이 수입되었던 문종17년이전에 板刻한 초조본을 뜻하고 國後本은 契丹本이 수입된 이후 그것을 低經으로 판각한 初雕本을 일컬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경전의 경우 宋本에 의거한 國前本과 契丹本에 의거한 國後本이 있었다면 國前本은 開寶勅板 목록인 開元釋教錄에 들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들어 있지 않고 貞元15년(799)에 圓照가 편찬한 貞元新定釋教目錄 권23에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극히 특수한 사례를 들어서 顯宗朝에 宋新譯經論과 續貞元釋教錄의 수록분까지 상당히 많이 간행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⁴¹⁾ 이것은 北宋이 대장경을 간행할 때 開元釋教錄 入藏錄 이외의 것 중 특수한 것은 미리 간행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송 太宗의 어제인 御製祕藏證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것은 송 太宗의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먼저 간행하여 成宗10年(991) 印成大藏經이 들어올 때 보내왔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帝撰인 까닭에 대접상 초기에 개판하고 正藏의 뒤인 茂(?), 實, 勒, 碑, 刻의 함차에 대충 배당하였던 것이다. 그후 宋 至道2年(996)에 箋注 再編한 新本⁴²⁾이 再輸됨에 따라 다시 간행하여 富, 車, 駕, 肥, 輕의 函次로 조정하였다.⁴³⁾ 위의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破僧事도 이 경우와 같은 사례에 해당된다 하겠다.

契丹大藏經의 판각규모를 알 수 있는 실물로서는 두가지가 있다. 그중의 하나가 國前本 目連五百問事經인데 이는 千惠鳳교수가 誠庵古書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발굴하여 고증한 것이다.⁴⁴⁾ 이 경전에 대한 守其法師의 교감기를 보면, 宋本220問의 탈루가 심하여 재조시 367問인 國本과 契丹本으로 보충한다 하였으니⁴⁵⁾ 宋本을 바탕으로 한 國前 初雕本인 220問事經은 契丹本에 의한 國後 初雕本인 367問事經이 板刻되자 代替, 削除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현전 실물을 통해 고증할 수 있으니 이 경전은 國後本의 板刻規模를 아는 데 있어 가장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실물은 道行般若經이다. 이 경전은 南禪寺 소장목록에도 보이지 않는 유일한 傳存本이다. 이 경전은 守其의 교정별록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 경전은 再雕本과 본문을 비교해 보면 본권제4의 제9品題가 '摩訶般若波羅密道行經覺魔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再雕本에서는 이를 '摩訶般若波羅密道行經覺品'으로 고치고 그 아래에 '丹經魔

品'을 細注하고 있는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丹本에 의거한 初雕本의 '覺魔品'을 守其가 再雕本에 이르러 송본을 참고하여 '覺品'으로 고치고 그 舊品題가 丹本에 의한 것임을 밝혀 준 것이니 이렇게 볼 때 이 初雕本은 文宗17년 契丹本이 輸入된 이후 當朝에서 판각된 國後本임이 분명하다.⁴⁶⁾

이와 같이 文證과 實物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國後本은 契丹本을 바탕으로 삼고 그대로 다 새겨 一藏을 갖춘 것이 아니라 國前本에 없는 것이라든가 본문에 錯寫, 脫漏, 不足이 심한 것 등만을 판각하여 國前本과 同一 또는 별도의 함차에 편입시키거나 代替, 編入시켰던 것으로 여겨진다.

2. 校正別錄의 校勘內容

守其의 校勘방법은 函次順에 의해 진행하고, 對校本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國本, 宋本, 契丹本の 三國本을 근간으로 하고 그 경전의 기록을 담고 있는 佛經目錄, 그리고 相關경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校勘의 내용은 79件 70函 66經을 對校한 결과, 문장의 탈문을 보충한 것이 20件, 經典의 眞僞與否, 無·失, 重出, 不必要로 인하여 代替, 削除, 函次移動이 이루어진 것이 16件, 문장의 前後倒錯으로 인한 重寫, 重重寫, 錯重寫를 바로잡은 것이 14件, 문장의 重疊, 內容 또는 卷數의 相異, 內容의 錯亂, 譯者의 誤謬를 바로잡은 것이 15件, 流通經典이라 그대로 둔 것이 3件이고, 再校勘의 대상으로 11건을 남겨 놓았다.

위의 교감내용은 양이 많고 세부적인 결과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章의 끝에 <표1>로 체계화하고 표의 내용을 아래에 세부적으로 분석해 살펴보고자 한다.

2.1 문장의 脫文을 補足한 내용

문장의 脫文을 보충한 내용은 20건인 데, <표1>을 참조해 보면, 7, 20, 21, 22, 24, 26, 27, 30, 31, 33, 37, 38, 46, 47, 48, 53, 57, 60, 63, 75가 이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國丹本에 의해 송본의 탈문을 보충한 경우는 7, 20, 21, 22, 26, 27, 33, 38, 53, 60, 63의 11종이고, 丹本에 의해 송본의 탈문을 보충한 경우는 30, 31, 47의 3종

이며, 國本에 의해 宋丹本の 脫문을 보충한 경우는 37의 1종이며, 丹本에 의해 國宋本の 脫문을 보충한 경우는 46의 1종이며, 國宋本에 의해 丹本을 보충한 경우는 48의 1종이다. 國後本 및 丹本에 의해 宋本 및 國前本을 보충한 경우는 75의 1종이며, 經의 본문에 의해 삼국본의 脫文을 보충한 경우는 24의 1종이다. 또 국단본에 의해 송본의 脫문을 찾아 냈으나, 文義가 연계되어 脫문을 그대로 둔 경우는 57에 해당한다. 國丹本에 의해 송본의 脫문을 보충한 경우중 53의 日連五百問事經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물이 발견됨으로서 國後 初雕本인 367問事經에 의해 國前 初雕本인 220問事經의 脫문을 보충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校正別錄에 보이는 용어의 개념은 실물의 발견과 확인작업에 의해 더 구체화 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것은 후일의 과제로 미루어 두기로 하겠다. 여하튼 대부분 宋本の 脫문이 많아서 國丹本 또는 丹本에 의해 보충된 경우가 대부분인 점에서 단본의 본문이 정확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2.2 經典의 眞僞與否, 無·失, 重出, 不必要로 인하여 代替, 削除, 函次移動이 이루어진 內容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6건인 데, <표1>에 의하면, 8, 11, 13, 15, 18, 19, 39, 40, 42, 43, 35, 39, 74, 76, 77, 78에 해당한다. 이 중 경전의 眞僞與否로 宋本을 丹本으로 代替한 예는 8, 39, 40, 42, 43, 45, 49의 7종이다. 이 중 39는 丹本으로 대체하면서, 송본은 45의 경전과 同本異譯이라 45로 函次移動이 된 경우이다. 宋本 또는 國宋本の 無·失로 丹本이 편입된 경우는 11, 15, 18의 3종이다. 또 경전의 重出로 인해 削除되거나 대체된 경우는 13, 19, 74, 76, 77의 5종이다. 이 중 13은 丹本은 結本이고 宋本은 知函의 것과 重出이라 여기서는 삭제된 경우이고 19는 宋本の 重出로 丹本으로 대체된 경우이며, 74는 國宋本이 竟函의 경전과의 중출로 이 함차의 것은 削除한 경우이며, 76, 77은 國本이 寧管楚函과 重出이라 다른 경전으로 대체한 경우이다. 國本の 不必要로 인해 새로운 書目과 代替된 경우는 78의 1종이다. 이 항목에서 다루는 16종의 경전은 初雕와 再雕大藏經의 차이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들이기 때문에 아래의 제3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개괄적인 설명에 그치고자 한다.

2.3 문장의 前後倒錯으로 인한 重寫, 重重寫, 錯重寫를 바로잡은 내용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4건인데, <표1>를 참고하면, 1, 4, 25, 52, 55, 56, 58, 61, 62, 64, 65, 67, 69, 72에 해당된다. 이 중 國丹本에 의해 宋本의 前後倒錯과 錯寫 또는 錯重寫를 바로잡은 것은 1, 25, 58, 61, 64, 65의 6종인데, 58은 國丹本으로 宋本의 前後倒錯을 정정하고, 다시 丹本에 의해 國宋本의 탈문을 보충했으며, 61은 國丹本에 의해 송본의 前後倒錯을 바로잡고, 國本은 문장 가운데 重寫된 부분이 있어 선택에서 제외되었다. 또 丹本에 의해 宋本, 國宋本, 國本の 重寫와 錯重寫를 바로잡은 것은 52, 55, 56, 62, 73의 5종이다. 나머지 3종은 4, 67, 69인데, 4는 丹本の 권2가 없어서 明度經에 의해 宋本의 前後倒錯을 바로잡았고, 67은 國本에 의해 宋本의 錯重寫를, 69는 國宋本에 의해 國本の 前後倒錯된 문장을 바로 잡고 있다. 이들 항목의 경우에도 거의 宋本이나 國本の 重寫, 重重寫, 錯重寫를 丹本에 의해 바로잡고있는 것으로 나타나 丹本の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2.4 문장의 重疊, 內容 또는 卷數의 相異, 內容의 錯亂, 譯者의 誤謬를 바로잡은 내용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5건인데, <표1>에 의하면, 2, 5, 6, 16, 23, 32, 34, 35, 36, 50, 54, 66, 68, 71, 72에 해당한다. 문장의 重疊이 정정되 예는 5와 6의 2종인데, 5는 東北2本(國丹本)에 의해 송본의 重疊을 바로잡았고, 6은 諸本(國丹本)에 의해 송본의 補足, 削除가 동시에 이루어진 예라 할 수 있다. 문장내용의 일부가 정정된 것으로는 23, 32, 34, 50, 71, 72의 6종이 있다. 이 중 丹本에 의해 國宋2本の 내용을 정정한 것으로는 32, 34, 50이며, 國丹本에 의해 宋本의 내용을 정정한 것으로는 23, 71이며, 國丹本에 의해 宋本의 내용을 정정한 것은 71이다. 권수의 차이로 인해 校勘이 이루어진 것은 54의 1종인데, 宋本은 8권이고 國丹2본은 10 권으로 권수의 차이가 나서 대조해보니, 國丹2本에 의해 宋本의 5권과 7권을 補足하였다. 문장의 錯亂을 정정하 것으로는 2, 16, 68의 3종이다. 이 중 2는 丹

본의 須摩提經, 鳩摩羅什 譯本이 錯重되어 國宋本의 法護 譯本을 선택한 것이고, 16은 丹本의 須眞天子經 下卷 分別品 제8 끝부분이 錯亂되어 宋本을 선택한 경우이며, 68은 丹本 菩薩本緣經 3쪽14행이 錯亂되어 國宋本으로 바로 잡은 경우이다. 이 세본은 國宋本 또는 宋本에 의해 丹本의 錯亂을 정정하여 丹本의 문장이 오히려 國宋本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예에 해당한다 하겠다. 譯者의 오류를 바로잡은 경우는 35, 36, 66의 3종인데, 35와 36은 관련하여 校勘한 것인데, 起世經과 起世因本經의 두경전은 國宋本과 丹本을 대조하여 보니, 丹本이 眞本으로 起世經은 闍那崛多 역본이고, 起世因本經은 達摩笈多역본임을 알 수 있었다. 66은 分別功德論의 역자가 竺法護, 迦葉, 阿難등으로 다양한것을 丹本, 開元錄, 法上錄, 僧祐錄을 대조하여 失譯으로 정정하였다.

2.5 流通經典을 채택한 내용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3건인데, <표1>에 의하면, 3, 70, 79에 해당한다. 이 중 3은 大集經인데, 삼국본중 宋本의 오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芬皇宗의 流通經典이라 그대로 채택되었다. 이와 유사한 경우는 79인데, 佛名經은 廻漢函의 18권본과 이합차인 寧晉楚函의 30권본이 있다. 이 중 18권본이 문헌목록에 나타나는 정통경전임에도 불구하고 유통경전인 30권본을 채택한 경우이다. 70의 金十七論 3권은 開元錄과 長房內典2錄을 참조한 결과 外經임에도 불구하고 이경전은 外道 迦毗羅仙人이 造명한 數論經의 일부로서 外經의 으뜸경전으로 失傳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채택된 경우이다.

2.6 再校勘의 대상으로 채택한 내용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1건인데, <표1>에 의하면, 9, 10, 12, 14, 17, 28, 29, 41, 44, 51, 59로 나타난다. 이 중 譯者가 不分明하여 再校勘의 여지를 둔 것은 9, 10, 13, 28, 29의 5종인데, 9는 鞠函의 月等三昧經으로 國宋2本은 大月等經5권의 후반에 해당하며, 역자가 安世高인 듯한 데 상고가 어려운 예이다. 10의 養函, 佛說彌勒下生經은 丹本은없고 宋本만 있는 데, 이경전은 竺法護 譯本도 六譯三失本중의 하나의 失本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확증이 어려운 경우

이다. 12의 敢函, 佛說申日經은 法護 譯本이 아니고 支謙 譯本인 듯한 데 분명하지 않은 예에 해당한다. 28과 29는 비교하여 校勘한 결과, 丹本이 法界無差別論 賢首 疏釋本이고, 宋本은 翻譯者와 時期를 정확히 상고하기 어렵고 單譯本인데 重譯에 넣은 이유도 상세하지 않은 경우이다. 翻譯중 單譯과 重譯의 분류가 애매하여 再校勘의 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17의 1종이 있는 데, 罔函, 賢劫經8권은 已函의 賢劫千佛名號經과 單重合譯으로 重譯에 넣어야 하는데, 單譯에 넣고 罔函에 分入한 구체적인 연유를 알 수 없는 예이다. 내용의 비교가 어려워 재교감의 대상에 포함된 것은 41, 44, 59의 3종인데, 41의 若函, 舍衛國王十夢經은 增一阿舍經 제51과 同本異譯으로 丹本이 國宋本에 비해 상세한데 去取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이고, 44의 甚函, 大安般守意經2권은 경전의 序文과 註釋중에 끊어져야 할 부분이 끊어지지 않고 연서된 곳이 많으나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대로 둔 예이며, 59의 分函, 阿毗曇毗婆沙論권14는 國本이 宋丹本에 비해 17장5행에 455자의 添文이 있으나 文義가 연계되지 않아 교감을 할 수 없었던 경전이라 하겠다. 나머지 14와 51의 경우, 14, 知函의 東方最勝燈王陀羅尼經은 단본이 眞本이고 宋本은 開元錄에 의거하니, 陀羅尼(章)句經인 듯한 데 확증이 어렵다. 51, 外函의 沙彌尼雜戒文은 國宋本の 서명이고, 丹本은 沙彌尼離戒文이며, 세본의 정문을 통해보면 沙彌離戒文으로 각기 다른 데, 어느 것을 선택하기가 곤란하여 그대로 둔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다.

위에서 검토한 바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30권의 내용을 간략하게 분석하여 <표1>로 대신하고자 한다.

<표 1>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을 통해본 校勘內容

番號	函次	經名 (編輯者)	對校本	被校勘本	校勘本과 校勘內容
1	服函	決定毗尼經	宋本 對二本	宋本 : (大藏目錄의 35) 12쪽 14행, 14쪽初4행, 15쪽19행 등 세군데의 문의가 단절되고, 14쪽初4행 중 24자의 錯重寫	二本(國丹2本)에 의해 송본의 前後倒錯과 錯重寫를 정정함.

番號	函次	經名 (編輯者)	對校本	被校勘本	校勘本과 校勘內容
2	服函	須摩提經 (法護譯)	國宋2本 對 丹本 및 開 元錄	宋本 : (大藏目錄의 39) 法護譯本	丹本, 鳩摩羅什 譯本은 錯重으로 삭제하고, 國 宋2本の 法護 譯本을 선 택함.
3	推函	大集經	國宋2本 對 丹本 및 僧 祐錄	宋本 : (大藏目錄의 56)	宋本의 오류가 많으나, 芬皇宗의 先行經이라 그 대로 채택함.
4	虞函	大集經 제 59권	國宋2本存, 丹本下2卷 無 및 明度 經	宋本 : (大藏目錄의 56) 제9쪽17행, 제10쪽21행, 제12쪽2행 등 세군데의 문의가 단절됨.	明度經에 의해 송본의 前後 倒錯을 바로잡음.
5	伐函	般若三昧經 3권 (後漢 支婁迦讖 譯)	宋本 對 東 北2本	宋本 : (大藏目錄의 67) 上卷에 16偈頌 대신 長 行 10餘紙의 문장이 中 卷의 無著品 四華品과 같이 重疊된 문장임	東北2本(國丹本)에 의해 宋本의 重疊된 문장을 정정함.
6	鳳函	正法華經 10권	宋本 對 諸 本	宋本 : (大藏目錄의 117) 제6권초 藥王菩薩品の 첫머리부터 제6쪽3행까 지의 내용이 없음. 法師 品이 重疊되어 있음.	諸本(國丹2本)에 의해 宋本의 藥王菩薩品(1행 ~6쪽3행)을 補足하고, 法師品은 삭제하였으며, 法志品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
7	王函	普耀經 8권 {제2권} (法護譯)	宋本 對 國丹2本	宋本 : (大藏目錄의 112) 제1卷末 : 現相品 제3, 제2권 : 便有欲生時3瑞 品 제5, 제4品 缺	國丹2本 제2권 降神處胎 品 제4(13紙)에 의해 송 본의 脫漏된 문장을 보 족함.
8	鞠函	月燈三昧經 1권(宋 沙 門 先公譯) {13 紙}	丹本, 國宋 2本 對 開 元錄	※ 大藏目錄의 182 : (開元釋教錄에는 없음)	丹本과 國宋2本の 비교, 및 開元錄의 문헌기록에 의기, 丹本 : 大月燈經 6 卷의 前半으로 先公譯의 眞本임 (10紙 12行){송본 을 단본으로 代替함}

16 한국비블리아 제 7 집

番號	函次	經名 (編輯者)	對校本	被校勘本	校勘本과 校勘內容
9	翰函	月燈三昧經 1권(宋 沙 門先公 譯) (國宋藏本 26紙)	國宋2藏, 丹本對開 元錄	宋本:(大藏目錄의 183)	國宋2本과 丹本の 비교, 및 開元錄의 문헌기록에 의거, 國宋2本:大月等 經 5권의 후반에 해당하 며, 譯者의 上考가 어려 움.(安世高?) {재교감의 대상}
10	養函	佛說彌勒下 生經(竺法 護 譯)	宋本有, 丹 本無, 開元 錄 및 孤山 智圓重校金 剛般若後序	宋本:(大藏目錄의 197, 開元釋教錄에는 없음.)	開元錄과 孤山智圓重校 金剛般若後序에 의하면, 6譯3失本중의 하나가 아 니고 失本經은 용지수가 17紙 7,222字인 데, 이 경전은 3,176字임. 竺法護 역은 아님. {재교 감의 대상}
11	養函	佛說彌勒下 生成佛經 (義淨 譯) (宋無丹有 今還收入)	宋本無, 丹 本有, 開元 錄	宋本:(大藏目錄의 199)	丹本과 開元錄을 참조하 여 3失本の 하나인 丹本 을 편입시킴.
12	敢函	佛說申日經 (法護譯)	宋本有, 丹 本無, 開元 錄	宋本:(大藏目錄의 234) 참조:月光童子經(大藏 目錄의 219) 두 경전의 重出임.	開元錄에 의거하면, 이 申日經은 支謙 역인 듯 한 데 분명하지 않음. 재교감의 대상
13	才函	六字神呪經 (大唐天竺 菩提流志 譯)	國宋2藏對 丹本, 開元 錄	宋本:(大藏目錄의 316) 참조:六字神呪王經(大 藏目錄의 345) 두 경전의 重出임	開元錄의 기록과 國宋2 藏을 참조하니 (丹藏에 는 없음), 이 합차의 것 은 菩提流志 譯 六字神 呪王經이 아니고, 知函의 失譯本과 重出이어서 이 합차의 것은 삭제함.
14	知函	東方最勝燈 王陀羅尼經 (闍那崛多 譯)	丹本對宋 本 및 開元 錄	宋本:(大藏目錄의 349, 開元釋教錄에는 없음)	丹本이 眞本임, 송본은 開元錄에 나오는 陀羅尼 (章)句經 인 듯 하다. 두종류가 쌍존하므로 재 교감의 대상임.

番號	函次	經名 (編輯者)	對校本	被校勘本	校勘本과 校勘內容
15	知函	最勝燈王如來經(闍耶崛多譯)	宋本 對 丹本	宋本 : (大藏目錄의 350)	宋藏經에는 없고 丹本에만 있어서 丹本에서 편입시킴.
16	必函	須眞天子經(宋4권, 丹3권)	丹本 對 宋本	宋本 : (大藏目錄의 372)	丹本은 下卷 分別品 제8의 끝부분이 錯亂되어 채택하지 않고 송본을 선택함.
17	凶函	賢劫經 8권	賢劫經 對 賢劫千佛名號經	宋本 : (大藏目錄의 387)	이 경전은 凶函의 賢劫千佛名號經과 單重合譯으로 重譯에 넣어야 하는데, 單譯에 넣고 망함에 분입함. 재교감의 대상임.
18	詩函	蘇悉地羯羅供養法 3권 輸波迦羅唐言善無畏譯	丹本 對 國宋2本 및 開元錄	大藏目錄의 431, 開元釋教錄에는 없음.	國宋2藏本에는 없고, 開元錄 및 貞元錄의 기록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丹本에는 感函에 들어 있어 이에 의해 편입시킴.
19	羔函	魔逆經(法護譯)	國丹2本 對 宋本 및 開元錄	송본 : (大藏目錄의 463) 참조 : 文殊師利悔過經(大藏目錄의 538) 두 경전의 重出임.	國丹2本이 正本이다. 開元錄에 의하면, 이 경전은 單譯인데, 송본의 경우 念函의 文殊師利悔過經과 重出되어 있어 이 函次의 송본을 삭제하고 丹本으로 대체함.
20	作函	大智度論 제4권	宋本 對 二本	宋本 : (大藏目錄의 549) 제1쪽9행과 제2쪽8행의 두 군데 缺文이 있음.	二本(國丹本)에 의해 宋本の 缺文을 補足함.
21	聖函	大智度論 14권	宋本 對 二本	宋本 : (大藏目錄의 549) 제11쪽초행에 17행의 缺文이 있음.	二本(國丹本)에 의해 宋本の 缺文을 補足함.
22	建函	大智度論 제31권	宋本 對 二本	宋本 : (大藏目錄의 549) 제27쪽末6행과 29쪽初행에 31행의 缺文이 있음.	二本(國丹本)에 의해 宋本の 缺文을 補足함.

18 한국비블리아 제 7 집

番號	函次	經名 (編輯者)	對校本	被校勘本	校勘本과 校勘內容
23	谷函	大寶積經論 4권(菩提流 支譯)	宋本 對 國 丹2本 및 開元錄	宋本:(大藏目錄의 552) 제1권의 내용이 大寶積 經 112권에 해당함.	國丹2本에 의해 송본의 제1권을 바로잡음.
24	曰函	攝大乘論釋 권제 9 (世 親菩薩 釋 真諦 三藏 譯	三國本 對 攝大乘論 釋 권제9 本文	宋本:(大藏目錄의 590) 제9쪽13행에 缺文이 있 음.	本論釋권9의 본문 中卷 24쪽에 의해 三國本(國 宋丹本)의 결문을 보충 함.
25	當函	決定藏論	宋本 對 二 本	宋本:(大藏目錄의 598) 15쪽18행, 17쪽6행, 20쪽5 행의 세군데 文義가 단 절되어 있음.	二本에 의해 송본의 단 절된 문장의 進退를 정 정함.
26	竭函	寶性論 2권	宋本 對 他 本	宋本:(大藏目錄의 600) 13쪽제2행이하에 24행 338자의 脫文이 있음.	他本(國丹2本)에 의해 송본의 脫문을 바로잡 음.
27	力函	轉識論	宋本 對 他 本	宋本:(大藏目錄의 612) 제4쪽15행과 5쪽13행에 脫文이 있음.	他本(國丹2本)에 의해 송본의 脫문을 바로잡 음.
28	命函	法界無差別 論 1권 (提 雲般若譯)	丹本, 國宋2 本, 開元錄, 賢首疏	宋本:(大藏目錄의 639) ※ 賢首疏釋本:大藏目 錄의 640, 開元釋教錄 에는 없음.	丹本과 國宋2本을 비교 해보니, 丹本은 賢首疏 의 註釋本에 해당한다. 宋本은 開元錄과 賢首疏 에서 單譯이라 했는데, 실제는 重譯에 해당한 다. 시대와 번역자를 상 고하기 어려움. 재교감 의 대상.
29	命函	國本宋本法 界無差別論	國宋本, 丹 本, 開元錄, 賢首疏	宋本:(大藏目錄의 639)	위 28의 내용과 같음.
30	薄函	中阿舍經 권 11	國宋2本 對 丹本	宋本:(大藏目錄의 648) :권 첫머리에 일부의 闕文	丹本에 의해 宋本의 闕 文을 補足함. (中阿舍經王 相應品七寶經 제1)
31	薄函	中阿舍經 권15	國宋2本 對 丹本	宋本:(大藏目錄의 648) :권 첫머리에 35행 490 자의 闕文.	丹本에 의해 宋本의 闕 文을 補足함.

番號	函次	經名 (編輯者)	對校本	被校勘本	校勘本과 校勘內容
32	松函	雜阿舍經 제4권(求那跋陀羅譯)	國宋2本 對 丹本	宋本:(大藏目錄의 650) 初4권:流函 雜阿舍經42 卷의 重刊	丹本에 의해 국송본의 내용을 바로잡음.
33	川函	雜阿舍經 제34권	宋本 對 二 本	宋本:(大藏目錄의 650) 27쪽2행에 脫文이 있음.	二本(國丹本)에 의해 송 본의 탈문을 補足함.
34	不函	別譯雜阿舍 經	國宋2本 對 丹本	宋本:(大藏目錄의 651) 제5卷木5經과 6卷初5經 이 없음.	丹本에 의해 국송2본의 闕經을 보충하고 梵問經 과 度須跋經으로 分入 함.
35	澄函	起世經	國宋2本 對 丹本	宋本:(大藏目錄의 660)	아래 36의 내용과 비교 하여 교감함.
36	取函	起世因本經	宋本 對 丹 本, 開元錄 및 緣生錄	宋本:(大藏目錄의 661)	起世經과 起世因本經을 대조하니, 각기 譯者가 다름. 開元錄, 譯注, 緣 生經에 의거하고, 丹本 을 正本으로 삼아 起世 經:闍那囉多, 起世因本 經:達摩笈多의 譯으로 함.
37	映函	大樓炭經 권제1	宋丹2本 對 國本	宋本:(大藏目錄의 662) 19쪽8행이하에 15행의 脫文이 있음.	國本에 의해 宋丹2本の 脫文을 보충함.
38	映函	中本起經 권 下	宋本 對 他 本	宋本:(大藏目錄의 663) 10쪽14행이하에 脫漏된 문장이 있음.	他本(國丹本)에 의해 송 본의 脫文(瞿曇彌來作比 丘尼品 9)을 보충함.
39	容函	受歲經	丹本 對 國 宋本, 및 開 元錄	宋本:(大藏目錄의 688) 참조:受新歲經(大藏目 錄의 871), 新歲經(大藏 目錄의 872)	丹本の 受歲經, 宋本の 受新歲經, 開元錄을 비 교하니, 이 函次의 것은 丹本이 眞本이고, 송본 의 受新歲經과 竟函의 新歲經은 單譯인지, 重 譯의 여부는 남겨두고 受新歲經은 竟函으로 移 編함.

20 한국비블리아 제 7 집

番號	函次	經名 (編輯者)	對校本	被校勘本	校勘本과 校勘內容
40	止函	佛說頻毗婆羅詣佛供養經(法炬譯)	國宋2本 對丹本 및 開元錄	宋本 : (大藏目錄의 716)	丹本이 法炬譯의 眞本이고, 국송본은 增一阿舍經 제26 等見品の 抄出로 東晉 瞿曇 僧 伽提婆의 번역본이다. 국송2본을 單本으로 대체함.
41	若函	舍衛國王十夢經(安公失譯經今附西晉錄)	國宋2本 對丹本	宋本 : (大藏目錄의 735, 開元釋教錄에는 없음)	이 경전은 增一阿舍經 제51 大愛道般涅槃品과 同本異譯으로, 丹本이 國宋2本에 비해 더욱 상세하나 去取를 할 수 없음, 재교감의 대상.
42	若函	四未曾有經 1권(竺法護譯)	國宋2本 對丹本 및 開元錄	宋本 : (大藏目錄의 748) 참조 : 四未增有經(大藏目錄의 237) 두 경전의 重出임.	丹本이 이항차의 眞本임, 송본은 1. 眞本 四未增有經의 逸失, 2. 未增有經 一本의 重載, 3. 失譯을 法護譯으로 간주, 4. 大乘經典을 小乘經典에 넣은 것 등의 네가지 착오로 인하여 刪去하고 丹本으로 대체함.
43	籍函	本事經 제3권	國宋2本 對丹本	宋本 : (大藏目錄의 803) 1. 品目名義의 차이가 남, 2. 2段, 3段중 일부 문장의 重重寫, 3. 卷末 頌의 내용에 차이가 남.	丹本은 18段本으로 眞本임, 宋本은 48段本으로 丹本에 비해 형태적인 차이는 물론 몇가지 착오가 지적됨. 宋本을 丹本으로 대체함.
44	甚函	大安般守意經 2권		宋本 : (大藏目錄의 806)	경전의 序文과 註釋 부분이 끊어지지 않고 連書된 곳이 많음, 재교감의 대상.
45	竟函	受新歲經 (竺法護譯)	國宋2本 對丹本 및 開元錄	宋本 : (大藏目錄의 871) 참조 : 受歲經(大藏目錄의 688), 新歲經(大藏目錄의 872)	위 39의 내용과 관련이 됨, 前의 容函중에 들어 있는 國宋2本의 受新歲經이 이 函次內的 新歲經과 同本異譯이라 이 항차로 移編된 것이고

番號	函次	經名 (編輯者)	對校本	被校勘本	校勘本과 校勘內容
					容函에는 丹本을 편입시킴.
46	竟函	護淨經(失譯人名 附東晉錄)	國宋2本 對丹本	宋本 : (大藏目錄의 864)	國宋2本 3쪽5행에 25자가 丹本보다 많아 이 2본에 의해 丹本을 補足함.
47	攝函	十誦律 권5	丹本 對國宋2本	宋本 : (大藏目錄의 890) 26장2행이하에 91행의 문장이 없음.	丹本에 의해 宋本에 脫漏된 91행의 문장(9자 제외)을 補足함.
48	樂函	根本說一切有部苾芻尼毗奈耶 권제 20	宋本 對國宋2本	宋本 : (大藏目錄의 892) 19장20행이하에 59행의 문장이 없음.	丹本에 의해 國宋2本の 脫漏된 문장을 補足함.
49	隨函	彌沙塞五分戒本 (宋尉賓三藏 佛陀什 等譯)	國宋2本 對丹本	宋本 : (大藏目錄의 901)	丹本이 正本이고, 國宋2本은 같은 函次內의 十誦比丘波羅提木, 鳩摩羅什 譯本과 錯重寫됨. 國宋2本을 丹本으로 代替함.
50	隨函	摩訶僧祇比丘尼戒本 (東晉法顯, 覺賢 共譯)	宋國2本, 丹本 對律尼部, 比丘同戒 및 丹本 對諸律, 五部戒本	宋本 : (大藏目錄의 900)	丹本이 正本임. 宋國2本은 律尼部 및 比丘同戒와 비교하고 丹本으로 교정하여 入藏함. 丹本에도 없는 부분은 諸律 및 五部戒本을 참조하여 주석을 담.
51	外函	沙彌尼離戒文 (失譯附 東晉錄)	國宋2本, 開元錄 對丹本, 諸本の 正文	宋本 : (大藏目錄의 912)	三國本(國宋丹本)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음. 丹本에는 沙彌尼(雜)戒文으로 되어 있음. 諸本(三國本)의 正文에 의하면, 沙彌離戒文이 옳음. 再校勘의 대상.

22 한국비블리아 제 7 집

番號	函次	經名 (編輯者)	對校本	被校勘本	校勘本과 校勘內容
52	傳函	四分比丘尼羯磨 1권 丹本: 求那跋摩, 宋本但云 女人出家事	宋國2本 對丹本	宋本: (大藏目錄의 919)	丹本이 正本임. 丹本에 의거 宋本의 문장의 重用, 不分, 錯亂, 題目의 오류, 譯者의 錯誤 등을 바로잡음.
53	入函	目連問戒律中五百輕重事 1권 (竺佛念 等譯)	國丹2本 對宋本	宋本: (大藏目錄의 929)	國丹本(367問)을 가지고 宋本(220問)의 脫文을 補足함. 총 500問이 되지 않으니, 번역의 誤記인지 書寫의 착오인지 불분명함.
54	諸函	鼻奈耶 10권	國丹2本 對宋本	宋本: (大藏目錄의 936) 권수가 8권임. 제5권, 7권이 缺卷이고, 6권이 5권, 8권이 7권으로 되어 있음.	國丹2本, 10권본으로 宋本의 缺卷인 5권과 7권을 補足함.
55	子函	阿毗曇八捷度論 권6	宋本 對國丹2本	宋本: (大藏目錄의 943) 제4쪽11행이하에 75행문의 錯重寫	丹本에 의해 國宋2本의 錯重寫된 문장을 刪去하여 바로 잡음.
56	子函	阿毗曇八捷度論 8권	國宋2本 對丹本 및 安公序	宋本: (大藏目錄의 943) 7쪽2행과 9쪽10행 사이에 35행의 문장이 重寫되어 있음.	丹本과 安公의 序文을 참조하여 宋本의 重寫된 문장을 刪去하여 바로잡음.
57	孔函	發智論 8권	宋本 對國丹2本	宋本: (大藏目錄의 944) 3쪽9행이하에 76자의 脫文 이 있음.	國丹2本과 비교하여 宋本에 脫文이 있으나, 문장의 연계상 무리가 없어 그대로 둠.
58	同函	集異門足論 권 제14	宋本 對二本	宋本: (大藏目錄의 946) 제8쪽9행, 9쪽5행, 11쪽10행의 文의가 단절.	二本에 의해 宋本의 斷絶된 세군데 文장의 진퇴를 바로 잡고, 丹本에 의해 國宋2本 12쪽6행이하에 35행의 脫文
59	分函	阿毗曇毗婆沙論 권14	國本 對宋丹2本	宋本: (大藏目錄의 951)	國本은 宋丹2本에 비해 17장 5행이하에 455자의 첨문이 있으나 文의가

番號	函次	經名 (編輯者)	對校本	被校勘本	校勘本과 校勘內容
					연계되지 않음. 재교감의 대상.
60	慈函	阿毗達摩大毗婆沙論 권 14	宋本 對 二本	宋本 : (大藏目錄의 952) 16쪽末에 68행의 脫文	二本에 의해 宋本の 脫文을 보충함.
61	測函	阿毗達摩大毗婆沙論 권 32	宋本 對 國丹2本	宋本 : (大藏目錄의 952) 제7쪽初3행, 8쪽14·5행, 10쪽初4행의 文의가 단절됨.	國丹2本에 의해 송본의 斷絶된 文장의 全體를 바로 잡고 國本은 9쪽17행이하에 12행의 重寫된 文장이 있어 不取함.
62	弗函	大毗婆沙論 권 65	國宋2本 對 丹本	宋本 : (大藏目錄의 952) 19쪽6행이하에 일부 文장의 錯重寫	丹本에 의해 國宋2本에 錯重寫된 40자를 58자로 正정함.
63	廉函	大毗婆沙論 권 109	國丹2本 對 宋本	宋本 : (大藏目錄의 952) 19쪽20행이하에 일부 脫漏된 文字(無)가 있음.	國丹2本에 의해 송본의 脫漏된 文字를 바로잡음.
64	逸函	大毗婆沙論 권 199	宋本 對 二本	宋本 : (大藏目錄의 952) 23쪽16행이하에 文장 일부의 錯寫가 있음.	二本에 의해 宋本の 錯寫된 146자를 109자로 正정함.
65	逸函	大毗婆沙論 권 200	宋本 對 二本	宋本 : (大藏目錄의 952) 3쪽7행 : 85자의 錯重寫 17쪽6행, 18쪽21행, 22쪽初 2·3행에 일부 文字(無)의 脫字가 있음.	二本에 의해 송본의 錯重寫와 脫字를 바로잡음.
66	涓函	分別功德論 제5권	丹本, 開元錄, 法上錄, 僧帖錄	宋本 : (大藏目錄의 973)	丹本の 권차가 5권인 것은 分券의 의미만 있고, 譯者가 竺法護, 迦葉, 阿難등으로 제기되나 失譯임.
67	涓函	十八部論 (開元錄云 新爲失譯附秦錄)	宋本 對 國本 및 開元錄	宋本 : (大藏目錄의 976) 部異集論을 十八部論으로 錯重寫	國本에 의해 宋本の 錯重寫를 바로잡음.
68	觀函	菩薩本緣經 권 상	丹本 對 國宋2本	宋本 : (大藏目錄의 988)	國宋2本에 의해 丹本 3쪽14행이하의 26행442자의 錯亂을 바로잡음.

24 한국비블리아 제 7 집

番號	函次	經名 (編輯者)	對校本	被校勘本	校勘本과 校勘內容
69	驚函	雜寶藏經 권 제5	丹本 對 國宋2本	宋本 : (大藏目錄의 1001)	國宋2本에 의해 丹本の 제2쪽과 4권초의 重寫된 내용을 정정함.
70	盡函	金十七論 3	開元錄, 長房內典二錄	宋本 : (大藏目錄의 1032)	佛敎의 정동경전이 아니고 外道 迦毗羅仙人이 造明한 數論經 中の 일부임.
71	右函	神州三寶感通錄 3권	宋本 對 二本	宋本 : (大藏目錄의 1069) 상권 : 宣律師感通錄1권으로 되어 있음.	二本에 의해 宋本의 상권을 바로 잡음.
72	既函	辨正論 7권	宋丹2本 對 國本	宋本 : (大藏目錄의 1076) 제6쪽초행에 注文이 45행으로 되어 있음.	國本에 의해 宋丹本의 6쪽초행의 注文 45행을 51행으로 정정함.
73	佐函	一字頂輪王經 제 1 권 (此則國本宋本未見)	國本 對 丹本	宋本 : (大藏目錄의 1290)	丹本에 의해 國本의 제7쪽8·9행, 13쪽19행, 20쪽8행의 단절된 문장의 進退를 정정함.
74	孰函	佛說木槵經 (不空譯)	國宋2本 및 續開元釋教錄	宋本 : 大藏目錄에는 없음.	이 函次의 佛說木槵經은 竟函의 木槵子經, 失譯人名附 東晉錄과 같은 경전에 해당함. 이 孰函의 경전은 생략함.
75	傾函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破僧事 권 13	國前本 及 宋本 對 國後本 及 丹本	宋本 : (大藏目錄의 1390) 14쪽20행, 17쪽9행이하에 脫漏된 문장이 있음,	國後本 및 丹本에 의해 國前本 및 宋本의 脫漏된 문장을 보충함.
76	廻函	摩訶衍論10	國本	宋本 : (大藏目錄의 1396)	이 두 함차에는 본래 國本인 佛名經 18권본이 들어 있었는데, 寧晉楚函의 30권본(당시의 유통본)과 같아서 18권본을 삭제하고 摩訶衍論과 玄文論으로 대체함.
77	漢函	玄文論 20 권			

番號	函次	經名 (編輯者)	對校本	被校勘本	校勘本과 校勘內容
78	俊父 密函	高麗國新雕 大藏校正別 錄(守其編)	國本	大藏目錄: 1402	이 합차에는 본래 國本인 一切經源品次錄30권本(從梵撰)이 들어 있었으나, 看覽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校正別錄으로 代替함.
79	寧晉 楚函	佛名經 30 권	宋丹2本 對 國本, 開元 錄, 貞元錄	大藏目錄: 1404	위 76.77과의 관련임. 宋丹2본에는 없음. 國本은 18권본과 30권본이 있는 데, 30권본이 유통경전이라 그대로 두고 18권본을 삭제함.

III. 初雕・再雕大藏經의 變容

위에서는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의 低本과 校勘內容을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初雕大藏經의 원형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몇가지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章에서는 이 요소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서 문헌기록속에 나타나는 사례에 대한 가능한 부분의 전면적인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初雕 및 再雕大藏經 變容의 요소들은 여러가지가 있는 데, 2장 2.2의 16개항목과 2.3, 2.4의 일부항목들중 初雕와 再雕를 가름하는 중요한 단서들을 중심으로 항목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初雕本의 僞本을 再雕시 代替된 것

이 경우는 再雕時 경전의 眞僞 與否로 宋本을 丹本으로 대체한 것으로 7종이 있다.

- ① 8 鞠函 月等三昧經 1권 宋 沙門 先公 譯
- ② 39 容函 受歲經
- ③ 40 止函 佛說頻毗婆羅詣佛供養經 法炬 譯
- ④ 42 若函 四未增有經 竺法護 譯
- ⑤ 43 籍函 本事經 3권

⑥ 45 竟函 受新歲經 竺法護 譯

⑦ 49 隨函 彌沙塞五分戒本 宋罽賓三藏 佛陀什 等譯

8, 鞠函의 月等三昧經 1권은 契丹本과 國宋本을 開元錄에 의거해 보니, 丹本이 大月等經 6권의 前半으로 先公 譯의 眞本이라 宋本을 丹本으로 代替한 경우이며,⁴⁷⁾ 初雕는 宋本이지만, 先公 譯의 僞本이라 할 수 있다. 舊大藏目錄에는 일련 순서, 182, 鞠函에 들어 있으나 開元釋教錄에는 없다. 舊大藏目錄에는 이 경전뒤에 宋本(僞本)의 표시를 해야 한다.

39, 容函의 受歲經은 45, 竟函의 受新歲經과 관련되어 있다. 丹本の 受歲經과 宋本の 受新歲經 및 開元錄의 내용을 相互比較한 결과, 容函에는 丹本の 受歲經을 眞本으로 편입하고 宋本の 受新歲經은 竟函의 新歲經과 同本異譯이라 竟函으로 函次移動이 이루어진 것이다.⁴⁸⁾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舊大藏目錄에는 688, 容函에는 현재의 丹本 受歲經을 삭제하고 871, 竟函에 들어 있는 宋本 受新歲經을 688, 容函으로 函次移動해야 한다.

40, 止函의 佛說頻毗婆羅詣佛供養經은 國宋本과 丹本 및 開元錄을 비교한 결과, 丹本이 이 경전의 眞本이고, 國宋本은 增一阿含經 제26권 等見品の 抄出로 東晉 瞿曇僧伽提婆 譯이어서 國宋本을 丹本으로 代替하였다.⁴⁹⁾ 初雕는 法炬譯本の 僞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舊大藏目錄 716, 止函에 들어 있는 法炬 譯의 이 經典에는 宋本(僞本)의 표시를 해야 한다.

42, 若函의 四未增有經은 守其의 校勘記에 의하면, 國宋本, 丹本 및 開元錄을 비교해 보니, 丹本이 眞本이고 國宋本은 毀函의 未曾有經에 해당되었다. 守其法師는 宋本の 착오를 1. 眞本 四未增有經의 逸失, 2. 未增有經 一本의 重載, 3. 失譯을 法護역으로 간주, 4. 大乘經典을 小乘經典에 넣은 것 등의 네가지로 지적하고 宋本을 刪去하고 丹本으로 代替한다고 하였다.⁵⁰⁾ 따라서 初雕의 宋本은 法護譯의 僞本임을 알 수 있다. 舊大藏目錄에는 748, 若函의 四未增有經에는 宋本(僞本)의 표시를 해야 한다.

43, 籍函의 本事經 제3권은 校正別錄 권19의 校勘記를 참조하면, 丹本은 18段本이면서 내용전개가 2分2果2纏에 의해 2법을 설명하고 品目名義가 합당하며 4권末의 내용처리가 바르게 되어 있어서 眞本에

해당하였다. 國宋本은 43段本인데 品目名義에 차이가 나고 2段, 3段의 일부분장이 重重寫가 나타나며 卷末頌의 내용 차이가 있어 僞本으로 판정되어 송본을 단본으로 대체한다고 하였다.⁵¹⁾ 초조본의 宋本은 守其의 교감기에 의하면 僞本에 해당함으로 舊大藏目錄에는 803, 籍函의 本事經 다음에는 宋本(僞本)의 표시를 해야 한다.

49, 隨函의 彌沙塞五分戒本, 佛陀什 譯本은 守其 校勘記에 의하면, 國宋本과 丹本을 대조해 보니, 丹本이 律의 내용전개로 보아 正本에 해당하고, 國宋本은 같은 函次內의 十誦比丘波羅提木, 鳩摩羅什 譯本과 錯重寫되어 僞本에 해당함으로 丹本으로 代替한다고 하였다.⁵²⁾ 초조본 송본은 위본임으로 舊大藏目錄의 900, 隨函의 彌沙塞五分戒本에는 宋本(僞本)의 표시를 해 주어야 한다. 위의 7종을 종합하여 보건대, 初雕本은 再雕시 모두 僞本으로 인정되어 宋本이 丹本으로 代替된 것들이다. 따라서 舊大藏目錄에는 송본의 표시는 물론 僞本임을 밝혀서 후대에 발굴되더라도 시대적 가치는 인정되겠지만, 文獻의 가치에서는 考慮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2. 初雕本の 無·失로 再雕시 編入한 것

이 경우는 宋本 또는 國宋本の 無·失로 丹本이 編入된 것으로 3종이 있다.

- ① 11 養函 佛說彌勒下生成佛經 義淨譯 (宋無丹有今還收入)
- ② 15 知函 最勝燈王如來經 闍那崛多 譯
- ③ 18 詩函 蘇悉地羯羅供養法 3권

11, 養函의 佛說彌勒下生成佛經, 義淨譯本은 校正別錄에 의하면, 開元錄에 의거하여 보니, 이 경전은 前後 6譯3失本중 3失本의 하나여서 丹本을 이 함차에 編入시킨다고 하였다.⁵³⁾ 그렇다면 이 경전은 宋本에는 없고 再雕시 丹本에 의해 편입되었으니, 舊大藏目錄 199, 養函에 들어있는 義淨 譯本은 削除되어야 하므로 199에 '削除'의 표시를 해야 한다.

15, 知函의 最勝燈王如來經, 闍那崛多 譯本은 校勘記에 의하면, 宋藏經에서 잃어버린 것이라 丹本에 의해 編入한다고 하였다.⁵⁴⁾ 이 기록에 근거하여 현재 舊大藏目錄 350에 入藏되어 있는 闍那崛多 譯本에는 '削除'의 표시를 해서 初雕本の 근거를 삼아야 한다.

18, 詩函의 蘇悉地羯羅供養法 3권은 守其의 校勘記를 참조하면, 이 輸波迦羅(唐言 善無畏) 譯本은 國宋本에는 없고 開元錄과 貞元錄의 문헌기록과도 일치하지 않아 契丹本 感函에 들어있는 것을 이 함차에 編入시킨다고 하였다.⁵⁵⁾ 따라서 이 경전은 초조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丹本이므로 舊大藏目錄 431의 경전옆에 '削除'의 표시를 해두어야 하겠다.

이들 세 경전은 모두 再雕大藏經 간행시 國宋本에는 없고 丹本에만 있어서 編入시킨 경전들이다. 그 중 11과 15는 再雕 당시에는 無·失 되었지만, 開元釋教錄에는 들어 있어(198, 345) 無·失의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전이다. 校勘記에 의거하여 '削除'의 표시를 했으니 초조본이 발굴되면 다시 수정될 수 있다. 18은 國宋本, 開元錄, 貞元錄과는 無關한 丹藏經이고 초조본 간행시는 분명히 없었던 것이 확실하여 '削除'의 표시가 초조본의 원형 설계에 文證이 된다고 하겠다.

3. 初雕本の 重出로 再雕시 削除 또는 대체한 것

이 경우는 宋本, 國宋本, 國本の 重出로 再雕시 削除하거나, 丹本이나 他經典으로 代替한 것으로 5종이 있다.

- ① 13 才函 六字神呪經 菩提流志 譯
- ② 19 羔函 魔逆經 法護 譯
- ③ 74 孰函 佛說木槵經 不空 譯
- ④ 76 廻函 摩訶衍論
- ⑤ 77 漢函 玄文論

13, 才函의 六字神呪經은 校勘記에 의하면, 國宋藏에는 六字神呪王經이 들어 있고, 丹藏經에는 없다. 開元錄의 기록과 國宋本을 참조해 보니, 이 函次의 것은 菩提流志 譯의 六字神呪王經이 아니고 知函의 失譯本과 重出이어서 이 함차의 것은 削除한다고 하였다.⁵⁶⁾ 이 기록에 근거하면, 再雕시 삭제된 것이니 初雕 당시에는 이 함차에 편입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舊大藏目錄의 才函(306~312)에는 六字神呪王經, 菩提流志譯(345, 知函 六字神呪王經, 失譯과 重出)을 삽입해야 한다.

19, 羔函의 魔逆經, 法護 譯本은 守其의 校正別錄을 참조하면, 國

丹本이 正本에 해당하고, 宋本은 開元錄의 기록을 보면 單譯인데, 念函의 文殊師利悔過經과 重出되어 이 함차의 송본을 삭제하고 단본으로 代替한다고 하였다.⁵⁷⁾ 이 경전은 念函과의 중출로 인해 再雕시 丹本으로 대체된 것이니 初雕本의 경우 舊大藏目錄 463, 羔函에는 '宋本'(538, 念函, 文殊師利悔過經과 重出)의 표시를 해야 한다.

74, 孰函의 佛說木槵經, 不空 譯本은 校勘記에 의하면, 國宋本의 不空 譯本은 竟函의 木槵子經, 失譯人名今附東晉錄과 비교해보니, 내용이 거의 같고 문체는 漢晉의 譯에 해당한다. 續開元釋教錄에는 不說木槵經, 不空譯本이 들어 있는데, 이 孰函의 경전이 그것에 해당될 듯하나 이는 宋藏經에서는 이미 眞本 不空 譯本은 잃어버리고 竟函의 無譯人 경전을 不空 譯本으로 錯認한 듯하다. 따라서 이 孰函중의 경전은 削除한다라고 하였다.⁵⁸⁾ 이 경전은 再雕시 竟函의 경전과 重出되어 삭제되었으니, 初雕本에는 그대로 들어 있어야 될 것이다. 舊大藏目錄에는 孰函(1362~1369)에 '佛說木槵經, 不空 譯(862, 竟函 木槵子經, 失譯人名今附晉錄과 重出)'을 편입시켜야 한다.

76, 77, 摩訶衍論10권과 玄文論20권은 守其法師의 校勘記를 참조하면, 이 廻函과 漢函의 두 函次에는 본래 國本인 佛名經18권본이 들어 있었는데, 寧晉楚函의 30권본과 비교해보니, 동일 경전이였다. 후대 사람이 두 경전의 권수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고 異經으로 錯認하여 重編한 것이다. 지금은 30권본이 유통경전이므로 18권본을 削除하고 대신 廻函에는 摩訶衍論10권을, 漢函에는 玄文論20권을 代替한다 라고 하였다.⁵⁹⁾ 이 함차의 경우 再雕시 國本 佛名經18권본이 寧晉楚函의 30권본과 重出되어 他經典으로 代替하였으니, 舊大藏目錄에는 廻漢函(1396과 1397)에 '佛名經18권(1404, 寧晉楚函 佛名經30권과 重出)'을 넣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5종의 경전은 再雕시 宋本의 重출로 인해 그 중의 한 경전을 삭제하거나, 丹本이나 他經典으로 代替되었는데, 13과 74는 삭제된 것이니 초조에는 삭제된 경전을 복원하여 編入시켜야하고, 19는 丹本으로 대체된 경우이니 송본의 표시만 하면 된다. 76, 77은 國本으로 貞元錄에도 入藏된 경전인데 유통경전의 채택으로 他經典으로 대체된 것이어서 본래의 경전을 편입시켜야 한다.

4. 初雕本の 不必要로 再雕시 代替한 것

이 경우는 國本の 不必要로 인해 새로운 書目과 代替된 것인데, 78의 俊乂密函이다. 이 合차의 校勘記를 보면, 이 合차에는 본래 國本一切經源品次錄30권本, 從梵撰이 들어 있었다. 이 책은 諸經卷중의 首尾之語를 標學한 것으로 藏經을 看覽하는 이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삭제하고 교정별록 30권으로 對替한다라고 하였다.⁶⁰⁾ 이 合차에 원래 들어 있던 一切經源品次錄30권은 이 경전의 合차가 契丹藏經의 그것과 같기 때문에 單本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⁶¹⁾ 또 이는 부분적으로 맞는 것이 있을는지 몰라도 守其가 직접 丹本을 보고 언급한 蘇悉地羯羅供養法이 感函에 들어 있지 않고 현존본중 道行般若經도 敢函에 있지 않고 隨函錄에는 潛函에 들어 있어 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⁶²⁾ 여하튼 이 品次錄은 低本 藏經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고 재조시 校正別錄에 의해 代替되었기 때문에 초조본에는 원본이 編入되어야 함으로 舊大藏目錄에는 1402, 俊乂密函에 ‘一切經源品次錄30권’을 삽입시켜야 한다.

5. 初雕本の 重寫 또는 錯重寫로 再雕시 代替된 것

國宋本の 錯重寫로 丹本에 의해 代替된 것으로 52, 傳函, 四分比丘尼羯磨 1권본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守其의 校正別錄을 참조하면, 國宋本과 丹本을 비교한 결과 丹本이 懷素가 所集한 文의와 같아 正本에 해당하고 國宋本은 文장의 重用, 不分, 錯亂, 題目의 誤謬, 譯者의 錯誤등이 지적되어 丹本으로 代替한다라고 하였다.⁶³⁾ 이 기록에 의하면, 이 合차의 경전은 再雕시 宋本の 錯誤가 인정되어 丹本으로 對替되었기 때문에 舊大藏目錄에는 919, 傳函에 ‘宋本(문장의 重用, 不分, 錯亂, 題目의 誤謬, 譯者의 錯誤 등이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6. 初雕本の 內容錯誤로 再雕시 대체된 것

재조시 國丹本 또는 丹本에 의해 國宋本 또는 宋本の 內容을 正정한 것으로 4종이 있다.

- ① 23, 谷函 大寶積經論 4권 菩提流支 譯

- ② 32, 松函 雜阿含經 4권 求那跋陀羅 譯
- ③ 34, 不函 別譯雜阿含經
- ④ 71, 右函 神州三寶感通錄 3권

23, 谷函의 大寶積經論 4권은 守其의 校勘記에 의하면, 宋本 제1권은 내용이 國丹本과 달라 開元錄의 내용을 참조하여 검토한 결과 大寶積經112권의 내용이었고 論이 아니었다. 이를 國本과 契丹本에 의해 바로잡는다고 하였다.⁶⁴⁾ 이 경전은 再雕시 권1의 내용의 착오가 있어서 丹本으로 代替되었으니 初雕는 舊大藏目錄 552, 谷函에 ‘宋本(제1권, 大寶積經제112권의 내용이 들어 있어 착오임)’을 표시해야 한다.

32, 松函의 雜阿含經 4권은 守其의 校正別錄 권15를 참조해 보면, 國宋本과 丹本을 비교한 결과, 宋本은 流函에 들어 있는 雜阿含經42권의 重刊을 初4권으로 한 것 같고, 國本 역시 착오이다. 國宋本을 丹本에 의해 바로잡는다고 하였다.⁶⁵⁾ 이 기록에 의하면 再雕시 國宋本 初4권의 내용이 착오가 있어 丹本으로 대체되었으니 舊大藏目錄 650, 松函에는 ‘宋本(初4卷; 流函의 雜阿含經42卷의 重刊이 들어 있어 착오임)’을 표시해야 한다.

34, 不函의 別譯雜阿含經은 校勘記에 의하면, 이 경전의 5卷末5經과 6卷初5經이 宋本에는 없고 丹本에만 있어서 丹本에 의해 補足하고 梵文經과 度須跋經 2권으로 分入한다 라고 하였다.⁶⁶⁾ 再雕시 宋本에 闕經이 있어 丹本으로 대체한 것이므로 舊大藏目錄 651, 不函에 ‘宋本(5卷末5經과 6卷初5經이 闕經임)’을 표시해야 한다.

71, 右函의 神州三寶感通錄 3권은 교감기에 의하면, 宋本의 上卷이 宣律師感通錄으로 되어 있어 國丹本에 의해 바로잡았다 라고 하였다.⁶⁷⁾ 재조시 宋本 3권중 上卷에 착오가 있어 國丹本으로 교정하여 대체한 경우이다. 따라서 舊大藏目錄 1069, 右函에는 ‘宋本(上卷; 宣律師感通錄이 들어 있어 착오임)’을 표시해야 한다.

위의 4종은 모두 내용중 일부의 闕經으로 인한 착오가 있어서 再雕시 丹本으로 代替 된 것들이다. 따라서 初雕本의 變容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舊大藏目錄의 관련 함차에 ‘宋本(闕經)’의 표시를 해두어야 하겠다.

7. 初雕本の 卷數差異로 再雕시 代替된 것

이 경우는 國丹本에 의해 宋本의 내용을 정정한 것으로 54, 諸函에 해당한다. 諸函의 鼻奈耶 10권은 守其法師의 校勘記에 의하면, 國丹本은 10권인데, 宋本은 8권이다. 宋本은 그중 5권과 7권이 누락되어 있고 6권이 5권으로 8권이 7권으로 되어 있다. 國丹本에 의해 송본을 보충하여 入藏한다 라고 하였다.⁶⁸⁾ 國丹本으로 宋本의 5권과 7권을 補足하여 再雕시 丹本 10권으로 代替되었으니 舊大藏目錄 936, 諸函에 '宋本(8권)'의 표시를 해서 初雕本の 變容 근거로 삼아야 한다.

IV. 結論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30권의 내용을 통하여 考究한 低本과 校勘內容 및 初雕·再雕大藏經 變容의 分析 結果를 종합하고자 한다.

1. 校正別錄의 低本은 國本, 宋本, 契丹本이다. 國本은 初雕大藏經을 일컬으며, 顯宗2년(1011)경부터 宣宗4년(1087)까지 76년을 걸쳐 일단락되었으며, 低本으로 舊宋本, 契丹本, 宋朝大藏經, 國內傳本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初雕大藏經중 일부만이 校正別錄의 校勘대상이 되었는데, 服函부터 既函까지는 開元釋教錄의 수록분이고, 佐函, 孰函, 傾函 그리고 廻漢函은 貞元錄의 수록분이며, 俊父密函과 寧晉楚函의 경전은 국내전본에 해당한다.

2. 宋本은 北宋大藏經과 宋朝大藏經을 일컫는다. 北宋開寶勅板(971~983)은 成宗10년(991)에 수입되기 시작하여 顯宗2년(1011)년부터 국내에서 간행되기 시작하여 文宗朝초기까지 계속되었다. 宋朝大藏經은 開寶勅板이후 太平興國7년(982)부터 12세기 초기까지 翻譯 印出된 宋 新譯經과 貞元入藏經이다. 이들 경전은 고려 文宗37년(1083) 3월부터 수입되어 宣宗4년(1087)까지 간행되었다.

3. 契丹本은 重熙初年(1032)부터 咸雍年間(1065~1074)에 걸쳐 완성된 579帙의 경전이다. 송의 開寶勅板보다 권수가 많은 이 藏經은 文宗17년(1068) 3월에 高麗에 수입되어 본문에 錯寫, 脫漏, 不足이 심한 것은 編入 代替하여 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國前本은 開寶勅板을 低經으로 顯宗朝와 契丹本이 수입되었던 文宗17년 이전에 板

刻한 초조본을 뜻하고, 國後本은 契丹本이 수입된 이후 그것을 低經으로 板刻한 初雕本이라 하겠다.

4. 校正別錄의 79件 70函 66經의 校勘內容을 분석하였는 데, 脫文을 補足한것이 20건, 經典의 眞僞與否, 無·失, 重出, 不必要로 인하여 代替, 削除, 函次移動이 이루어진 것이 16件, 문장의 前後倒錯으로 인한 重寫, 重重寫, 錯重寫를 바로잡은 것이 14件, 문장의 重疊, 內容 또는 卷數의 相異, 內容의 錯亂, 譯者의 誤謬를 바로잡은 것이 15件, 流通經典이라 그대로 둔 것이 3件, 再校勘의 대상이 11件이었다. 이들의 결과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宋本이 脫文, 錯寫, 僞本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丹本의 本文이 비교적 정확하며, 對校本에 나타나는 國宋本과 國丹本의 정확한 개념 한계는 실물들의 출현을 기다려서 더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전의 誤謬가 있더라도 流通經典의 경우는 그대로 채택했으며, 校勘이 미흡하지 않은 부분은 11건이나 再校勘의 대상으로 남겨두었다는 점이다.

5. 校勘內容의 분석치를 근거로 한 初雕·再雕大藏經의 變容根據는 7개 항목이었다.

첫째, 初雕本의 僞本을 再雕시 代替한 것은 翰函의 月等三昧經1권을 비롯한 7종인데, 이들은 舊大藏目錄에 宋本의 표시는 물론 僞本임을 밝혀서 후대에 발굴되더라도 시대적 가치는 인정되겠지만 문헌적 가치에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初雕本의 無·失로 再雕시 編入된 것은 3종이다. 이들 세 경전은 國宋本에는 없고 丹本에만 있어서 編入시킨 것이다. 養函의 佛說彌勒下生成佛經과 知函의 最勝燈王如來經은 再雕 당시에는 逸失되었지만 開元釋教錄에는 들어 있어 일실의 시기를 정확히 밝힐 수 없는 경전이다. 校勘記에 근거하여 舊大藏目錄에 削除의 표시를 했으니 初雕本이 발굴되면 다시 수정될 수 있다. 詩函의 蘇悉地羯羅供養法3권은 國宋本, 開元錄, 貞元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丹藏經이고 初雕本 간행시는 분명히 없었던 것이 확실하며 削除의 표시가 初雕本 원형설계에 文證이 된다 하겠다.

셋째, 初雕本의 重出로 再雕시 削除 또는 代替한 것은 5종이다. 才函의 六字神呪經과 孰函의 佛說木 櫛經은 다른 함차와의 重出로 재조시 삭제되었으니 초조에는 본래의 경전을 복원, 편입시켜야 한다. 羔

函의 魔逆經은 丹本으로 대체되었으므로 宋本의 표시만 하면 된다. 廻函의 摩訶衍論과 漢函의 玄文論은 유통경전의 채택으로 他經典으로 대체된 것이니 본래의 경전을 編入시켜야 한다.

네째, 初雕本の 不必要로 인해 재조시 새로운 서목과 대체된 경우는 俊父密函이다. 이합차에 들어있던 國本 一切經源品次錄은 재조시 守其의 校正別錄에 의해 代替되어 초조본에는 원경전이 편입되어야 한다.

다섯째, 初雕本の 重寫 또는 錯重寫로 재조시 대체된 것은 傳函의 1종이다. 이 합차의 四分比丘尼羯磨 1권본은 재조시 착오가 인정되어 丹本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초조에는 宋本(문장의 重用, 不分, 錯亂, 제목의 誤謬, 譯者의 錯誤등이 있음)의 표시를 해서 文證으로 삼아야 한다.

여섯째, 初雕本の 內容錯誤로 재조시 대체된 것은 谷函의 大寶積經論을 비롯하여 4종인데, 이들 경전은 내용중 일부의 闕經으로 인한 착오가 있어서 丹本으로 대체된 것이니, 舊大藏目錄에는 宋本(闕經)의 표시를 하여 初雕本の 變容根據로 삼아야 한다.

일곱째, 初雕本の 卷數差異로 재조시 代替된 것은 諸函의 1종이다. 鼻奈耶는 宋本이 8권, 國丹本이 10권이다. 재조시 8권본이 10권본으로 대체되었으니, 舊大藏目錄의 諸函에는 宋本(8권)의 표시를 해서 初雕本の 근거로 삼아야 한다.

참 고 문 헌

- 1) 常般大定, 大藏經雕印考. 哲學雜誌, vol. 321.
- 2) 小野玄妙, 北宋官版覆刻高麗版大藏經目錄. 佛書解說大辭典 別卷. 東京, 大東出版社, 昭和11(1936) P. 704.
- 3) <舊大藏目錄>이란 再雕大藏經 更函에 들어 있는 大藏目錄 상중하 3권이다. 이 目錄은 再雕大藏經 목록이라면 通函에 들어 있어야 하는 데 更函에 들어 있어 初雕大藏經 목록임을 암시하고 있다. 즉 更函앞의 天函부터 楚函까지의 570函에 실린 경전들은 바로 初雕大藏經 구성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更函 다음의 通函까지의 藏經은 再造시 追雕本에 해당하는 것이다.
- 4) 鄭駉謨, 高麗大藏經의 復元. 書誌學研究 第2輯. 서울, 書誌學會, 1987 p. 3~108; 鄭駉謨, 高麗佛典目錄研究. 서울, 清浪鄭駉謨博士華甲紀念論文集編纂委員會, 1990.
- 5) 吳龍燮, 高麗新雕大藏校正別錄. 書誌學會, 書誌學研究 創刊號 (1986, 9) p. 213~249.
- 6) 千惠鳳, 羅麗印刷術의 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1980. p. 57~88.
- 7) 義天, 寄日本國諸法師求集教藏疏, 大覺國師文集 권14.
- 8) 志磐, 佛祖統紀 권43. 開寶4년 및 太平興國8년條.
- 9) 脫脫 等撰, 宋史 권43. 列傳 外國3 高麗傳 “端拱2年條: 端拱2年(高麗成宗8年, 989)……先是 治遣僧女可賚表來覲 請大藏經 至是賜之 仍賜如可紫衣 今同歸本國”; 馬端臨, 文獻通考 권325 考 2559.
- 10) 脫脫等撰, 宋史 권 487. 列傳 外國3 高麗傳 淳化2年條: “淳化二年(高麗成宗10, 991) 遣使韓 彥恭來貢 彥恭表述治意 求印佛經 詔以藏經并御製祕藏詮 逍遙詠 蓮華心輪賜之”; 鄭麟趾等, 高麗史 권 93. 列傳 권제6 韓彥恭條: “彥恭奏請大藏經 帝賜藏經四百八十一函 凡二千五百卷 又賜御製祕藏詮 逍遙(詠) 蓮華心輪還”
- 11) 鄭麟趾等, 高麗史 권3. 世家 권제3 成宗 辛卯 10年 夏4月條: “韓彥恭還自宋 獻大藏經 王迎入內殿 邀僧開讀下教赦”

- 12) 池內宏, 高麗條の大藏經(上). 東洋學報 第13卷3號 (大正12年(1923)8月) P. 8 과 朴泳洙, 高麗大藏經板의 研究. 白性郁博士頌壽記念佛敎學論文集(4292) P. 423에서는 ‘高麗史 편찬이전의 誤寫’라 했고,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74. p. 56에서는 ‘그 數 정도밖에 도입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 13) 李燕, 續資治通鑑長編 권94. 11월條: “十一月己卯 崔元信率東女眞首領入見 別貢中布二千 乞佛經一藏 詔賜之.”
- 14) 蔡忠順, 開城玄化寺碑陰記. 許興植編,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4. p. 450: “又於去庚申歲(顯宗11, 1020) 內……兼以昨(顯宗10, 1019)今差使 將紙墨價資 去入中華 奏告事由 欲求大藏經 特蒙許 送金文一藏 却不收納所將去價資物色 仍蒙宣 送彩色有二千餘兩 俾充隨願 乃得於當寺”
- 15) 鄭麟趾, 高麗史 권4. 世家권제4 顯宗 壬戌 13年(1022) 5月 丙子條: “韓朝還自宋 帝賜聖惠方 陰陽二宅書 乾輿曆 釋典一藏”
- 16) 周佇, 靈鷲山大慈恩玄化寺之碑名. 許興植編,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4. p. 441~447.
- 17) 鄭麟趾, 高麗史 권5. 世家권제5 顯宗20年 夏4月條.
- 18) 義天, 代宣王諸宗教藏雕印疏. 大覺國師文集 권제15: “顯祖則彫五千軸之祕藏 文考乃鏤千萬 頌之契經”
- 19) 雲客有機, 海印寺事蹟碑: “文宗時藏大藏經板”
- 20) 鄭麟趾, 高麗史 권7. 世家권제7 文宗5年 春 正月條에 보면 眞觀寺에 가서 新成華嚴, 般若經을 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大藏經인지 寺刹板인지 그 구분이 확실하지 않다. 初雕藏經이 三本華嚴經중 周本과 晉本은 開寶勅板을 근거로 하고 貞元本은 宋新譯經論 다음에 雕造 편입된 점에서 이것은 寺刹板으로 여겨진다. 般若經은 大品般若가 아니고 그것 이외의 약칭일 것으로 여겨진다.
- 21) 榮豐浮石寺圓融國師碑. 許興植編,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6. p. 479~484. : “癸巳(文宗7, 1053) 告門徒曰 形氣蛻歸於變嬪 逍遙鄉在於無何 吾必不得久淹世間 以前印寫大藏經一部 芸藏于安國寺 遣門人綱幹者”

- 22) 小野玄妙, 大中祥符錄の入藏目と景祐錄の入藏目, 佛書解說大辭典別卷, 東京, 大東出版社, 昭和11(1936), p. 685~689.
- 23) 志磐, 佛祖統紀 권43, 開寶4년 및 太平興國2년 및 8년條. 大藏會, 大藏經. 京都, 百華院, 昭和39(1964) P. 31-32: “北宋開寶七年甲戌歲(974)奉勅雕造 孫清”의 간기에 이어 “熙寧辛亥歲(1071)仲秋初十日 中書符子奉聖旨 賜大藏經板於顯聖寺聖壽禪院 造提轄管句印經院事 智悟大師賜紫懷謹”의 大藏經 移管記錄에 의해 입증된다.
- 24) 徽宗 大觀2年(1108)10월에는 十誦尼律이 印出되었다.
- 25) 鄭麟趾, 高麗史 권9, 世家권제9 文宗37年 3月條: “命太子(順宗)迎宋朝大藏經 置于開國寺 仍設道場”
- 26) 義天, 寄日本國諸法師求集教藏疏, 大覺國師文集 권14: “其開元釋教錄 智昇所撰 貞元續開元釋教錄 圓照所撰 兩本所收 經律論等 洎大宋新翻經論總六千來卷 并已雕撰施行訖”
- 27) 鄭麟趾, 高麗史 권10, 世家권제10 宣宗4年 2月條: “二月甲午 幸開國寺 慶成大藏經”
- 28) 鄭麟趾, 高麗史 권10, 世家권제10 宣宗4年 3月條: “三月己未 幸興王寺 慶成大藏殿”
- 29) 鄭麟趾, 高麗史 권10, 世家권제10 宣宗4年 4月條: “四月庚子 幸歸法寺 慶成大藏經”
- 30) 呂澂, 契丹大藏經畧考, 張曼濤 主編, 大藏經研究彙編(上), 臺北, 大乘文化出版社, 民國 66(1977), p. 207~214.
- 31) 趙明基, 佛教의 典籍으로서의 交流, 民族文化論叢제4집(華甲記念論文集), 大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3.
- 32) 脫脫, 遼史 권151, 高麗傳 清寧8年 12월條: “清寧8年(1062)來貢 十二月以佛經一藏賜徽”
- 33) 鄭麟趾, 高麗史 권8, 世家권제8 文宗17年 3月條: “契丹送大藏經 王備法駕 迎于西郊”
- 34) 脫脫, 遼史 권23, 道宗本紀23 咸雍8年 12月 庚寅: “賜高麗佛經一藏”
- 35) 이 기록이 遼史 高麗傳과 高麗史 文宗世家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清寧8年12月’을 ‘咸雍8年12月’로 잘못 옮겨

손에서 빚어진 과오가 아닌가 보고 있다.

- 36) 鄭麟趾, 高麗史 권11. 世家권제11 肅宗4年 夏4月 丁亥條; “遼遺橫宣使寧州管内觀察使蕭郎來兼賜藏經”; 靈通寺大覺國師碑에도 “當時北宋遼天佑帝(道宗)聞其名 送大藏及諸宗疏 六千九百餘卷’
- 37) 鄭麟趾, 高麗史 권12. 世家권제12 睿宗2年 庚寅條: “遼遣高存壽來 賀生辰 仍賜大藏經”
- 38) 守其,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권27. 觀函 菩薩本緣經 권上: “右經第三幅十四行 鹿群威猛(之下) 丹本有‘如我曾聞菩薩往昔以患因緣墮於龍中’乃至 ‘五穀陰熟遇天惡雹’等 凡二十六行 四百四十二字 國本宋本所無字…”
- 39) 宓庵, 丹本大藏慶讚疏. 東文選 권112: “念慈大寶 來自異邦 秩簡部經 函未盈於二百 紙薄字密 冊不滿於一千 殆非人功所成 似借神巧而就”
- 40) 守其,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권30. 傾函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破僧事 권13: “此卷 檢國前本及宋本中於第十四幅二十行 時太子復白王言(已下文脫) 今准國後本及丹本 則有聽我出家(乃至) 往四天王所或往等 (凡) 八十八行文 今依二本足之……”
- 41) 鄭秘謨, 高麗大藏經의 復元. 書誌學研究 第2輯. 서울, 書誌學會, 1987 p. 23.
- 42) 志磐, 佛祖統紀 권43. 至道2年條.
- 43) 南禪寺藏經一切經目錄. p. 189: 千惠鳳, 羅麗印刷術의 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1980. P. 69.
- 44) 千惠鳳, 高麗初雕 國前本 目連五百問事經에 대하여. 東方學志 제23, 24合輯. 서울, 延世大學校國學研究院, 1980. P. 253~285.
- 45) 守其,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권23. 密函 佛說目連問戒律五百輕重事: “按文 國本有三百六十七問 丹本同此 則宋本只有二百二十問者 脫之甚矣 今此二本補之……”
- 46) 千惠鳳, 初雕大藏經의 現存本과 그 特性. 大同文化研究 제11집. 서울, 成大大同文化研究院, 1976. p. 188.
- 47) 守其,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권2 鞠函 月等三昧經 1권.
- 48) 守其,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권18 容函 受歲經: 권20 竟函 受新歲經.

- 49) 守其,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권18 止函 佛說頻毗婆羅詣佛供養經.
- 50) 守其,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권18 若函 四未增有經.
- 51) 守其,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권19 籍函 本事經 제3권.
- 52) 守其,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권22 傳函 四分比丘尼學磨 1권.
- 53) 守其,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권3 養函 佛說彌勒下生成佛經.
- 54) 守其,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권4 知函 最勝燈王如來經闍那崛多 譯.
- 55) 守其,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권5 詩函 蘇悉地羯羅供養法 3 권, 輸波迦羅唐言善無畏 譯.
- 56) 守其,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권3 才函 六字神呪經 菩提流志 譯.
- 57) 守其,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권11 羔函 魔逆經法護 譯.
- 58) 守其,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권30 孰函 佛說本懃經 不空 譯.
- 59) 守其,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권30 廻漢函 摩訶衍論 10권, 玄文論 20권.
- 60) 守其,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권30 俊父密函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30권 守其等編.
- 61) 小野玄妙, 契丹官版大藏經目錄(私案). 佛書解說大辭典(別卷), 東京, 大東出版社, 昭和 11(1936) P. 689-703.
- 62) 千惠鳳, 初雕大藏經의 現存本과 그 特性. 大同文化研究 11輯, 서울, 成均館大學校大同文化研究院, 1976, p. 189.
- 63) 守其,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권22 傳函 四分比丘尼學磨 1권.
- 64) 守其,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권12 谷函 大寶積經論 4권 菩提流志 譯.
- 65) 守其,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권15 松函 雜阿含經 4권 求那跋陀羅 譯.
- 66) 守其,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권16 不函 別譯雜阿含經.
- 67) 守其,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권27 右函 神州三寶感通錄.
- 68) 守其,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권54 諸函 鼻奈耶 10권.

ABSTRACT

The Study on Transformation of the First and the Second Carved Tripitaka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f Koryokukshinjodaechangkyochongbyollock

Kang, Soon-Ae*

Koryokukshinjodaechangkyochongbyollock(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is an epoch-making catalogue for historical study of proofing Buddhist scriptures in Korea. This bibliography was appended to the 30 volumes which was corrected in 70 Ham, 66 scriptures, and 79 cases. Compar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first carved Tripitaka's texts in Korea(初雕本), texts made in the Sung dynasty(宋本), and the Kitan's texts(契丹本), this catalogue discovered the name of scriptures(經名), translators(譯者名), volume number(卷數), the changed Ham order(函次移動) as well as omission(誤脫), defaults(錯寫), mistranslation(異譯) of the Tripitaka made in the Sung dynasty. From Chon-ham(天函) to Young-ham(英函), 480 sets among Kaewon-sokkyorock(開元釋教錄) and 43 sets among Chongwonrock(貞元錄) were correctly laid. Songshinyokkyong(宋新譯經) and the Sung Emperor, T'ai Tsung's statements were excluded. Even though it was possible to get these scriptures only by import from Sung(宋), these imported scriptures had no reason to be proofed because of their new version and the author's direct selection in Sung. Shinchipchangkyongeumeuisuhamlock(新集藏經音義隨函錄) has no authentic Sung's and Koryo's text books for correction. kyochongbyollock(校正別錄) delivered the scriptures listed on Kudaechangmoklock(舊大藏目錄), which gives an important clue to research transformation from the first to the second carved Tripitaka. Through the systematic study of the transformed facts between the first carved Tripitaka and the

* Full-time Instructor.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Han Sung University.

second one, This study would help rebuild the original Chojodaechangkyong(初雕大藏經) which has been not yet perfectly discovered itself.

Based on the corrected cases of scriptures enlisted on Koryokukshinjodaechngkyochongbyollock, this thesis establishes the study topic of transformation in the first and the second carved Tripitaka. To achieve this study, first, this thesis displayed the basic text for proof and the corrected facts, putting emphasis on literature analysis, which would be used for many purposes. Second, detailed motive and procedure of replacement, elimination, alternation were delivered in this thesis. However this thesis has a demerit to define its study to the limited range. I hope this is regarded a kind of trying to find the original catalogue of the first carved Tripitaka. In the future, this study would be widened its study area.

Results from study is following ;

1. Basic text for proofing Kyochongbyollock are Kukbon(國本), Songbon(宋本), and Kitanbon(契丹本). The first carved Tripitaka, Kukbon had been rearranged for 76 years from 1011 in the second year of the King Hyongchong's regime(顯宗) to 1087 in the 4th year of the King Sunjong's regime(宣宗). Basic text for Kukbon were the tripitaka made in the northern Sung dynasty(舊宋本), Kitan's scriptures(契丹本), and the newly translated scriptures made in the 37th year of the King Munjong's regime(宋朝大藏經), and currently circulated tripitakas in Koryo(國內傳本). Some parts of the first carved Tripitaka were the object to be corrected for Kyochongbyollock. Kaewonsokkyollock was corrected from Bok-ham(服函) to chi-ham(知函). Chongwonlock(貞元錄) was repaired and enlisted from chow-ham(佐函), Suk-ham(孰函), Kyong-ham(傾函), to Hoehan-ham(廻漢函). At Chunjemil-ham(俊乂密函, Youngjincho-ham(寧晉楚函) were included scriptures carved and circulated in Koryo.

2. Sung's Tripitaka included scriptures carved in Northern Sung(北宋大藏經) and Sung dynasty(宋朝大藏經). Kaebochikpan(開寶勅板)

among Northern Sung's began to be imported in 991, the 10th year of the king Songjong regime(成宗10年). It was published in about 1011, the second year of the king Hyonjong regime(顯宗2年). It continued to be published which the early year of the king Munjong regime. The Sung's Tripitaka -Shinyokkyong(宋新譯經) and Chongwonyipchangkyong(貞元入藏經)- were translated and published from 982 to the early 12 century since Kyebochikpan(開寶勅板). These scriptures were imported in March, 1083, the 37th year of the King Sunjong regime(文宗37年) and published until 1087, the 4th year of the King Sunjong regime(宣宗4年).

3. Kitan's Tripitaka(契丹本) included 579 set scriptures made from 1032, the early Chunghee(重熙初年) to Hameung years(咸雍年間)(1065-1074). This Tripitaka more volumes than Kaebochikpan were imported in March 1068, the 17th year of the king Munjong regime(文宗17年). Parts of inaccurate copy, omission, and insufficient contents in the main text were woven out of others and published. In relation to this, Kukchonbon(國前本) implies the first carved Tripitaka during the period of the king Hyonjong regime(顯宗朝) and the time before the 17th year of the king Munjong regime(文宗17年) as a basic texts of Kaebochikpan(開寶勅板), Kukhubon(國後本) were called the Tripitakas first carved as a basic text which was imported in kitan(契丹) at that 17th year of the king Munjong regime.

4. This study analyzed 79 cases(件), 70 Ham(函), 66 tripitakas(經) from Kyochongbyollock. It revealed that there are 20 cases of the omitted texts to be supplemented; 16 matters of replacement, omission, removal of Ham order by Tripitaka's genuineness or falseness, loss or disappearance, duplicated publication, unnecessary ; 14 items of sentence's change back and forth, duplicated records, multiplicated records, adulterated records; 15 cases of rearranging the duplicated sentences, differences of contents and volume number, translator's mistranslation ; 3 items of currently circulated scriptures ; 11 subjects necessary to be proofed. It is distinctive that there are many cases of

omitting sentences and copying the mixed text, false text in the Sung's Tripitakas. However, Kitan's main text were accurate at large. The precise definition of Kuksongbon(國宋本) and Kukdanbon(國丹本) seen at the each proofed text(對校本) should be specified in accordance with the real materials appearance. In case of currently circulated scriptures, they were selected wholly despite of their defaults. There are 11 cases necessary to be more rearranged. However they remained as the object to be studied.

5. Analysis of the corrected texts should that there are 7 cases in the carved Tripitaka's transformation between the first and the second.

First, there are 7 kinds of replacing the false basic text used for the first carving. Are included Woldeungsammaekyong(月等三昧經) in Kuk-ham(鞠函) into that kinds. It was proved that they are the false. These are estimated only as a historical preciousness, while they have no literature value.

Second, there are 3 items inserted into the second carved Tripitaka because of the first edition's disappearance or lose. Pulsolmiruk-hasaengsongbulkyong(佛說彌勒下生成佛經) in Yang-ham(養函) and Choseungdeungwangyoraekyong(最勝燈王如來經) in Chi-ham(知函) were lost at the time of second carving. But they were included in kaewonsokyolock. they can't be pursued for the date of disappearance. The erasing marks were leveled on kuaechangmoklock(舊大藏目錄) in accordance with Suki's(守其) proofing-records(校勘記). When the first carved Tripitaka are discovered, the accurate text would be reborn. Three volume Soshilgikalakongyangbop(蘇悉地羯羅供養法) in Shi-ham(詩函) is the Tanchangkyong(丹藏經) no related with Kuksongbon(國宋本), Kaewonlock(開元錄), and Chongwonlock(貞元錄). It was not dealt with the first carved Tripitaka, which was on literature proved by the erasing mark at the first Tripitaka.

Third, when the second Tripitaka was carved, there were 5 cases of eliminating the duplicated records at the first. Due to their duplication Yukjashinjukyong(六字神呪經) in Jae-ham(才函) and Bulsolmok-

hwankyong(佛說木槵經) in Shuk-ham(孰函) were altogether deleted at the second carving. The first carved Tripitaka should be rebuilt and inserted their original. Mayokkyong(魔逆經) in Ko-ham(羔函) was replaced by Kitan text, Indication of Songbon should be added to. Mahayonron(摩訶衍論) in Hoe-ham(廻函) and Hyonmunron(玄文論) in Han-ham(漢函) were chosen as currently used scriptures. They were substituted with other ones. They should be interpolated into the original Tripitaka.

Fourth, In chunjemil-ham(俊乂密函), there were enlisted the newly changed catalogues which were substitute for the unnecessary scriptures to the first carved Tripitaka. Ilchaekyongwonpumchalock(一切經源品次錄) enlisted at the Chunjemil-ham was replaced by Kyo-chongbyollock(校正別錄) in the second carving. It's original text would be interpolated into the first carved Tripitaka.

Fifth, In Pu-ham(傅函), there is the alternate in the second carved Tripitaka due to its duplicated and mixed one in the first carved Tripitaka. In Pu-ham, Sabunbikunikalma's(四分比丘尼羯磨) volume one was replaced by Kitan text because of its mistakes. In the first carved Tripitaka, it should have the indication of Songbon which implied the duplicated, undivided, and misused sentences, the misunderstood title, the translator's defaults.

Sixth, including the Taebochokkyongron(大寶積經論) in Kok-ham(谷函), there were 4 issues substituted for the misunderstood contents in the first carving. These scripture were changed into Kitan text because of omitting sentences of scriptures. Therefore in Kudaechangmocklock(舊大藏目錄) there should be an indication of Songbon, which revealed the transformation of the first carved Tripitaka.

Seventh, in Che-ham(諸函), there were one case that difference in volume numbers in the first carving were replaced by others. In the case of Binaya(毗奈耶), there were 8 volumes of Songbon(宋本) and 10 volumes of Kukdanbon(國丹本). Kudaechangmocklock(舊大藏目錄), should have the incation of 8 volume Songbon in Che-ham(諸函).